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UNESCO Korea-Japan Teachers' Dialogue

2016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 보고서
2016 Invitation Programme for Korean Teachers
2016. 02. 16. - 22.

목차 / 3

제 1장 실시 개요 / 5

- I.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사업 소개 / 7
- II. 2016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 / 10
- III. 프로그램 일정 / 13

제 2장 그룹 보고서 / 17

- I. A그룹 / 19
- II. B그룹 / 29
- III. C그룹 / 43

제 3장 부록 / 55

- I. 참가자 명단 / 57
- II. 프로그램 세부 일정 / 60
- III. 협력기관 정보 / 65
- IV. 관련 기사 / 67



제 1장 실시 개요

I.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사업 소개

1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사업

가. 사업목적

- 1) 최근 일본 교육현황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소개
- 2) 일본 사회 및 문화 체험
- 3) 한일 교사 간 교수 경험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4)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

나. 추진배경

- 1) 2000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 나카소네 히로후미 장관 방한 시 당시 문용린 교육부 장관에게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양국 교사 교류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한일 교사교류 사업은 양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엔대학,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 2) 일본에서는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2001년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에 한국교사 50명을 초청하였고, 2011년부터 유엔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신탁기금으로 주최하게 되었다. 2003년에 100명, 2007년에 160명, 2009년에 150명으로 초청 인원을 늘려 2016년 2월까지 한국교직원 1,878명이 방일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 3) 한국에서는 2005년에 교육부 지원을 받아 ‘일본교직원 한국방문 프로그램’으로 일본교사 20명을 초청하였고, 2008년에 54명, 2013년 50명으로 초청 인원을 확대하여 2015년 8월까지 일본교직원 492명이 방한하였다.
- 4) 향후 한일교직원교류 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비롯한 미래 세대 교육 현안에 대한 양국 교직원의 진정한 대화의 창구를 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한일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가. 한국교직원 일본방문(2001-2016년)

총 1905명 초청/실제 1878명 방일(27명 취소)

연도	기간	단장	교육부	총인원	방문지(도쿄, 오사카 포함)
2001	2.5-24 (3 주)	남상문	남상문	50 명	히로시마, 사가, 가고시마
2002	1.24-2.5 (2 주)	강대근	정봉근 김영재	50 명	미에, 효고
2003	1.16-27 (2 주)	김신일	구관서 한경문	99 명 (1 명 취소)	야마구치, 돗토리, 가가와, 미야자키
2004	1.29-2.10 (2 주)	강대근	임승빈 유지원	99 명 (1 명 취소)	홋카이도, 시즈오카, 오이타, 에히메
2005	1.19-2.1 (2 주)	도재원	강학래	99 명 (1 명 취소)	홋카이도, 후쿠시마, 효고, 돗토리
2006	1.11-24 (2 주)	이돈희	여종구 이병석	99 명 (1 명 취소)	홋카이도, 구마모토, 시가, 돗토리
2007	1.24-2.5 (2 주)	문용린	김태훈 김동환	159 명 (1 명 취소)	홋카이도, 효고, 사이타마, 나라, 가고시마
2008	1.22-2.4 (2 주)	이삼열	강정길	158 명 (2 명 취소)	군마현, 게센누마시, 다카라즈카시, 사이타마시, 아키타현
2009	2.3-16 (2 주)	이경숙	김규태 심민철	148 명 (2 명 취소)	니시고촌(후쿠시마현), 사이타마시, 나라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2010	1.12-25 (2 주)	전택수	강구도 정민웅	149 명 (1 명 취소)	게센누마시(미야기현), 도요나카시(오사카부), 가나자와시(이시카와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
2011	1.11-24 (2 주)	권대봉	홍성창 박혜원	149 명 (1 명 취소)	야치요시(치바현), 요사노초(교토부), 사이타마시(사이타마현), 치바현, 나라시(나라현)
2012	1.11-22	박은경	권희정 최유순	148 명 (2 명 취소)	사이타마시(사이타마현), 요사노초(교토부), 게센누마시(미야기현), 오카야마시(오카야마현), 후쿠오카현
2013	1.16-27	김태완	김은희 김윤정	144 명 (6 명 취소)	야치요시(치바현), 하시모토시(와카야마현), 고마쓰시(이시카와현), 치바현, 후쿠오카현
2014	1.19-27	안양옥	이진구 이동명	118 명 (2 명 취소)	나라시(나라현), 이나기시(도쿄도), 하시모토시(와카야마현), 고마쓰시(이시카와현)
2015	1.18-26	민동석	서혜선	98 명 (2 명 취소)	야치요시(치바현), 치바현, 와카야마현
2016	2.16-22	박흥순	박은숙 배선연	111 명 (4 명 취소)	고마에시(도쿄도), 사이타마시(사이타마현), 나가노현, 나리타시

나. 일본교직원 한국방문(2005-2015년)

총 498명 초청/실제 492명 방한(6명 취소)

연도	기간	단장	문부과학성/ACCU	총인원	방문지
2005	9.5-13 (8박 9일)	Mikami Kazuyoki (미야기 교대 교수) Tanaka Kazuaki (동경다케하야초 교감)	Asai Takashi (문부성 과장) 외 1명/ Iida Kazuro (ACCU 이사) 외 1명	24명	수원, 안동, 경주
2006	6.11-18 (7박 8일)	Kusahara Katsuhide (다쿠쇼쿠대 부총장)	Nishiyama Kazunori (문부성 국제협력정책실 인물교류전문관) 외 2명/ Ohashi Chiho (ACCU 전문원) 외 1명	25명	전주, 부여, 광주
2007	6.10-17 (7박 8일)	Nakasone Hirofumi (외무대신, 전.문부대신) Sagara Noriaki (교토노들담대 총장)	Tada Mayuko(전문원) 외 1명 / Iida Kazuro(이사) 외 1명	29명	대전, 청주, 경주
2008	8.19-28 (9박 10일)	Kozawa Kimiko (동경학예대학 명예교수)	Kawakubo Yuriko 외 1명 / Kimura Masatsugu (기획과 과장) 외 1명	52명 (2명 취소)	인천, 수원, 창녕, 경주
2009	8.26-9.4 (9박 10일)	Kiso Isao (문부과학성 국제통괄관, 일본유네 스코국내위원회 사무총장) Tejima Toshio (고토구립시노노메 초등학교장)	Shimizu Norihiko (문부성 국제통괄관보좌) 외 1명 / Iida Kazuro (ACCU 이사) 외 1명	53명 (1명 취소)	인천, 수원, 통영, 안동, 경주
2010	8.25-9.3 (9박 10일)	Sakaguchi Hitomi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위원, 미노 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Uemura Masaki (문부성 계장) 외 1명 / Shimazu Masakazu (ACCU사무국장) 외 1명	53명 (1명 취소)	안산, 시흥, 원주, 청주, 경주
2011	8.26-9.4 (9박 10일)	Kato Hisao (나라교육대 부학장)	Higashi Hideaki (문부성 계장) 외 1명 / Shimazu Masakazu (ACCU 사무국장) 외 1명	53명 (1명 취소)	경남(창원, 김해), 전남(순천)
2012	8.29-9.7 (9박 10일)	Iwamoto Wataru (문부과학성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 회 국제교섭분석관)	Sato Keiichi(문부성 전문직) 외 1 명 / Yoneshima Yuriko(ACCU 프 로그램 담당자) 외 1명	53명 (1명 취소)	경기, 충남
2013	8.22-29 (7박 8일)	Abe Hirofumi (오카야마대학 부학장)	Kamoshita Yuko(문부성 계장) 외 1명 / Yoneshima Yuriko(ACCU 프로그램 담당자) 외 1명	50명	충북, 강원
2014	8.26-9.1 (6박 7일)	Otsu Kazuko (홋카이도교육대학 부학장)	Mori Yusuke(문부성 계장) 외 1명 / Yoneshima Yuriko(ACCU 프로그램 담당자) 외 1명	50명	강원, 충북
2015	8.25-31 (6박 7일)	Higuchi Toyotaka (고마에제1중학교 교장)	Yamamoto Tsuyoshi(문부성 계 장) 외 1명	50명	경기, 전남

II. 2016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가. 기간: 2016년 2월 16일(화) - 22일(월) (6박 7일)

나. 장소: 도쿄, 나리타 및 3개 지역 [고마에시(도쿄도), 사이타마시(사이타마현), 나가노현]

다.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유엔대학

라. 후원: 대한민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

마. 참가자: 총 111명

1) 단장: 박흥순(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 부위원장)

2) 인솔자: 서현숙, 이선경, 홍보강, 이지은(유네스코한국위원회)

3)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및 교장(감)

4)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구분	A 그룹 고마에시 (도쿄도)	B 그룹 사이타마시 (사이타마현)	C 그룹 나가노현	계
구성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교육청 담당자 교육부 관계자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교육청 담당자	고/특수학교 교직원 교육청 담당자 교육부 관계자 단장	107
한위	홍보강	이지은	서현숙, 이선경	4
인원	39	35	37	111

바. 주요활동

- 1) 일본의 최근 교육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해
- 2) 일본 학교 및 교육 기관 방문
- 3) 수업 참관 및 한국 문화소개 수업, 일본 학생/교사 간 교류
- 4) 문화유적지 탐방 및 일본 가정방문
- 5) 참가자 개인 평가지 및 그룹별 보고회

6) 후속활동: 귀국 후 그룹보고서 작성

사. 소요비용

1) 주최 측 부담: 항공료, 숙박비, 식비(공식행사일 제외) 등 공식 일정에 따른 제경비

※ 개인별 경비 미포함

2) 참가자(학교 또는 기관) 부담

● 참가비: 1인당 30만원

(오리엔테이션 제경비 및 해외여행자보험료, 2016년도 한일교사교류 행사 참가비 포함)

● 국내여비: 오리엔테이션 장소 이동 및 방일 프로그램 참가 시 국내 여비

아. 통역: 전 일정 한국어-일어 통역사 동행(그룹별 2명 동행)

가. 일시: 2016 년 1 월 19 일 (화) - 20 일 (수) (1 박 2 일)

나. 장소: 유네스코평화센터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470 번길 167)

다. 참가자: 2016 년도 방일 참가자 115 명

라.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부

마. 주요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소개
- 2) 유네스코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소개
- 3) 일본 교육 환경 및 생활 문화 소개
- 4) 방일 준비사항 및 활동 안내
- 5) 그룹별 사전 준비 모임

III. 프로그램 일정

1 도쿄 일정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 17일 수요일)

가. 오리엔테이션 및 개회식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4시, 한국교직원 방일단 111명 (A 그룹 39명, B 그룹 35명, C 그룹 37명)이 일본방문 프로그램 첫 일정으로 선샤인 시티 호텔 5층 회의실 “룸 15”에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개회식에 참석했다.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도 유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인물교류부장이 환영 인사로 한국교직원들을 맞이하였으며, 이어서 자료 배부와 함께 6박 7일간의 일정 설명과 함께할 스텝 소개가 이루어졌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야마와키 요시오 문부과학성 국제통괄관, 다케모토 가즈히코 유엔대학 서스테이너빌리티 고등연구소장, 오이카와 쇼이치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이사가 방일단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이 양국 우호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참가 경험을 귀국 후 학생들과 공유하여 글로벌 리더 양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최성유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그 후 박흥순 방일단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이 답사로 환영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박흥순 방일단장은 새로운 2030 교육의제 실행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과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이 양국 교사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양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 일본 교육 강의



일본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의 도키에다 마사카즈 기획계장으로부터 “일본의 초등·중등 교육의 개요”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일본의 기본적인 교육제도를 시작으로 의무교육제도, 교과적 무상 지원 제도, 교원 양성 및 면허제도, 교육행정제도에 이어 학습지도 요령을 소개하였다. 일본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일본 학교 현장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을 짚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업무를 분담하여 학교와 지역의 연계·협동 강화를 실현하는 ‘팀으로서의 학교’ 개념을 설명한 후 일본의 학력·학습 현황을 소개하였다.

2 그룹별 일정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 20일 토요일)

가. 그룹별 지역 이동

나. 학교 및 기관 방문: 학교 수업 참관, 교사/학생과의 교류

다. 지역 환영만찬

라. 가정방문

마. 지역문화탐방

바. 그룹 평가회의

※ 제 2 장 그룹별 보고서 참조

가. 보고회



1) A 그룹 (발표자: 서울사대부설중학교 교감 최승욱)

“특색이 있는 고마에시 교육 이야기”라는 주제로 구성된 발표에서 고마에시 교육의 특징을 소개했다. 고마에시 교육위원회 예방을 통해 고마에시 교육의 특징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학생 주체의 방재교육이라는 것을 배웠고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에 전념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고마에시립 고마에 제 6 초등학교 방문에서는 학교가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자연과 환경을 체험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중앙도서관 방문에서는 지역사회와 밀착하고 시에서 0 세부터 2 세까지 3 단계로 아이에게 적합한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유아기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주력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A 그룹은 한일교사교류회를 통해 일본 교사들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의견교환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 양국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 B 그룹 (발표자: 한국국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교장 한기환)

B 그룹은 학교 방문을 통해 수업 참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발표했다.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 방문을 통해 학교, 가정, 지역, 행정이 협력하여 균형이 잡힌 학생을 육성하고 안정되고 자부심 있는 교육을 중점에 둔 교육비전에 대해 소개받고, 도키와마츠중고등학교 방문을 통해 인근 경찰서와 협력하여 교사와 학생들과 방법훈련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참관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체 및 중증장애 의료케어를 하는 사쿠라소특별지원학교 방문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한결같이 웃음과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3) C 그룹 (발표자: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정하경)

준비과정부터 일본에서 학교방문, 문화체험까지 소개한 C 그룹은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의 그룹멤버들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쇼와여자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교과과정, 학교폭력, 진로교육, 유네스코학교 활동 4 가지 주제에 관해 토론하여 한일교육 현황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발표했다. 나가노양호학교 방문에서는 학교의 교육 목적인 ‘열심히 하자, 건강하자, 당당하자’에 맞게 학생들이 주체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전개가 인상적이었으며,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학교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는 점이 특이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우선으로 하는 학교의 관리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4) 일본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의



각 그룹 발표 후에 시바오 도모코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시니어 어드바이저의 “유엔 ESD 10년: 일본학교의 성과” 강의를 이어졌다. ESD 추진을 위한 유네스코학교 오카야마 선언에 대해 소개하며, 일본학교에서의 주요 활동 및 ESD 10년 사업의 결과를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나. 폐회식

나리타 엑셀 호텔 도큐 지하 1 층 ‘엑셀’에서 열린 폐회식은 ACCU 의 신도 유미 인물교류과 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015 일본교직원 한국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일본교직원이 자리를 함께하고, B 그룹이 “이웃집 토토로”의 주제가를 부르며 축하공연을 했다. 도요오카 히로키 문부과학성 대신관방 국제과장과 박흥순 방일단장의 인사말에 이어 다무라 데쓰오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건배사를 전하며 이번 방문 일정을 마쳤다.

다. 귀국

프로그램 마지막날인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한국교직원 방일단은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하여 김해·인천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제 2장 그룹 보고서



I. A그룹

특색 있는 고마에서 교육 이야기

작성자: 고득환(영선중 교사), 이병희(경기도교육청 장학사)

2016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 A그룹 보고서

(2016.2.16-22, 일본 도쿄도 고마에시)

그룹명 : A 그룹(특색 있는 고마에시 교육 이야기)

작성자명 : 고득환(영선중 교사), 이병희(경기도교육청 장학사)

I.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1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국제이해교육(EIU)을 화두로 이천 유네스코 평화센터에 모인 우리 39명은 "2016 유네스코 일본 교류팀 Ace"로 거듭나며 설레임과 기대를 안고 고마에시 교육현장에 안착했다.

고마에시의 고등학교 1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을 방문하며 예상했던 촘촘한 일정을 확인하게 되었고, 우리와 일본의 비슷한 교육 형식과 또 다른듯한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교육 토대 위에 기초교육이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율과 자치가 교육 속에서 실천되는 모습.

이번 일본 방문 프로그램은 일본 교육현장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더불어 일본의 문화와 가정을 경험하며 교육을 중심으로 양국 간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향성을 가늠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II. 프로그램 보고서

- 프로그램 참여 목적
 - 한일 교사 간 대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양국 교육현안 이해
 -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실행 확산
 - 한일 교사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학교 및 기관 방문 내용

2016.2.17.(수) : 지바현립 나가레야마 오타카노모리 고등학교

독수리로 상징되는 나가레야마 오타카노모리고등학교는 "꿈·정열·도전"을 교훈으로 보통과와 국제커뮤니케이션과로 나누어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 관심, 진로희망에 따라 선택교과를 운영하며, 33개의 개성 넘치는 동아리를 운영하여 매력적인 학교 분야로 우수상을 3년 동안 수상한 역사가 있고 기품이 있는 학교였다. 조리실, 도서관, 체육관 시설을 견학하고, 국제커뮤니케이션과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이어서



학생들의 합창으로 시작된 환영행사, 교사들과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을 나누며 국제이해교육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매력적인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6.2.18.(목) : 고마에서 교육위원회



고마에서의 캐릭터 안안, 에코미, 녹두왕자의 환대 속에 고마에서의 역사와 문화재를 소개 받았다. 이어서 지도주사로부터 고마에서 교육위원회의 6가지 교육시책(지·덕·체 교육 활동, 개별 학생들을 위한 지원, 학생들의 안전 확보, 학교운영 지원과 교원육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특히, 고마에서의 교육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학생 주도의 방재교육과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중심 교육에 전념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2016.2.18.(목) : 고마에서립 고마에 제6초등학교



고마에 제6초등학교는 2014년 도쿄도 올림픽교육 추진교, 2015년 장애인 올림픽교육 추진교로서 건강교육(운동·보건·식생활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특히 근접한 다마강을 무대로 환경교육 등의 종합적인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멋진 우리 선생님들이 12개의 학급에서 '제기 만들기, 부채 만들기, 연 만들기, 딱지 치기, 윷놀이, 꼭두각시 춤 등'의 문화수업을 실시하였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은 흥미를 느끼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학교 교사들과 8개 그룹으로 제6초등학교 교육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16.2.19.(금) : 고마에서립 고민가원, 고마에서립 이즈미초등학교

고민가원은 고마에시에 남겨진 애도시대 후기의 농가로 농가생활과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이었다. 이곳에서는 이즈미초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과 함께 일본의 전통놀이를 체험하였다. '오자미, 팽이치기, 켄다마, 돈돈 스모, 실뜨기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놀이여서 추억을 떠올리며 동심으로 돌아간 즐거운 시간이었다. 특히 켄다마 놀이에 출중한 실력을 발휘한 선생님이 계셔서 일본 학생들이 놀라기도 하였다. 학생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방문한 이즈미초등학교에서는 일본의 식육교육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교실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일본 교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2016.2.20.(토) : 고마에시립 미도리노초등학교, 한일교육교류회

미도리노초등학교는 학생의 심리와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의 시설이 눈길을 끌었다. 서로 연결된 도서실과 컴퓨터실, 급식실과 가사실, 폭넓은 공간의 열린교실 등. 그리고 학생들이 브라스밴드에 참여하여 성취감을 높이는 등 감성교육에 주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어서 일본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한일교육교류회가 진행되었다. '왕따 및 등교거부문제, 외국어 및 영어교육, 교과융합교육, 건강교육, 특수교육'의 5개 영역에 대해 10그룹으로 나누어 일본 교사들과 한일 양국의 교육을 비교하며 문제점을 찾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Ⅲ. 프로그램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그 이유

- 학교(기관) 방문

2016.2.19.(금) : 고마에시립 고마에 제1중학교



체육관에서 시작된 환영행사, 학생회 주관으로 학교교육활동을 소개하고 전교생의 합창으로 환영하는 고마에 제1중학교는 다른 느낌이었다. '하얀 리본'의 정체도 궁금했고... 학교시설을 견학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한 뒤 모인 교실에는 또 학생들이 등장했다. 2학년 학생회장의 설명으로 '하얀리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학생들 사이의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노랫말을 만들고 선생님이 곡을 붙여 완성된 "함께". 그 노래가 학교로 마을로 퍼져 '하얀 리본 운동'으로 전개 되는 모습이었다. 그 하얀 리본은 바로 '학생 자치의 꽃' 이었다. 그 감동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우리나라의 한 중학교와 교류가 시작되는 실천으로 연결되었다.

- 가정 방문

2016.2.20.(토)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 비 속에 2명씩 짝을 이뤄 방문한 일본 가정. 오리엔테이션 때 들은 일본 가정의 예의와 친절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그 걱정은 도착하자마자 곧 사라졌다. 방문한 가정마다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과하지 않은 친절과 배려 속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학교에서 느꼈던 학생들의 단정함과 수줍음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꽃으로 피어났다. 특히 우리와 비교해서 소박하고 검소한 느낌,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일본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 이었다.



- 문화 체험

2016.2.20.(토) : 오하야시 공연



중앙공민관에서 시작된 일본의 전통공연. 어설픈 듯한 연주로 시작된 공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함과 놀라움으로 무르익었다. 지역사회의 어린 학생을 포함한 남녀노소의 주민이 함께 그들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 또 그 노력을 자랑스러워하는 진지함이 멋스러웠다. 가면의 주인공은 여성이었고...

- 기타

2016.2.19.(금) : 고마에시립 병·켄 재활용센터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잡은 고마에시립 병·켄 재활용센터. 우리나라였다면 가능했을까?

NIMBY... 지역 주민과의 오랜 대화를 거쳐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주민들의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의 과정을 거쳐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이 배가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IV. 프로그램 참가 성과와 그 이유

- 한국-일본 학교간 자매결연 논의
 - 한국의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와 일본의 고마에 제1중학교간에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이 외에도 여러 학교가 일본학교와의 교류를 추진하게 됨

- 일본 문화와 일본 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 일정을 통해 다양한 일본의 학교를 방문하여 일본 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고 일본 가정방문과 문화공연 관람을 통해 일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
 - 특히 일본의 교직원들과의 대화는 일본 학교교육의 자세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됨
 - 일정 중 접한 일본유네스코 관계자들의 배려와 세심한 준비 또한 일본에 대한 긍정적 태도변화를 유도하게 해줌

- 한-일 교사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 [한-일 교사간 대화] 및 [환영만찬]과 같은 만남의 장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됨
 - 일본 유네스코 관계자와도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한국학교-일본유네스코간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함.

- 한국 학교간 유네스코 활동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 교육이 교육자치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도간 교류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전국의 교육관계자가 함께 모이는 이번 연수는 지역간 정보를 교류의 장이 됨
 - 특히 인적 구성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는 공통관심사와 주제를 가지고 모여 더욱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었음

- 앞으로 단위학교의 유네스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V. 프로그램 활동 경험 적용 계획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장 적용

- 일본의 앞선 지속발전가능교육을 벤치 마킹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탐색하고자 함
- 유아에 친화적이고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도서관]의 사례를 한국의 도서관에 적용하고자 함
-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도심에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우리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도시 내에서 자원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함
- 일본교직원과 학생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수준 높은 안전교육프로그램을 한국에 적용하여보고 한국형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 학교급식문화의 변화유도

- 일본의 초등학교급식은 단순히 아동의 영양을 고려하는 급식에서 벗어나 식습관문화를 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식기를 사용하고 교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밥상머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일본의 식습관 문화교육의 상황에 대하여 주위에 전파하고 현재 가정에 일임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식습관 문화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VI. 향후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제안

- 학교방문 프로그램과 한-일 교직원간의 소통프로그램은 이 연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보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정방문을 통해 일본의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며 일본의 교육상황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음. 이 프로그램 역시 1회에 그치지 보다는 2회정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임
- 연수일정에 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연수참가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또는 연수기간을 늘려서 일정에 여유가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질 높은 연수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교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음

- 이 연수는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를 나누고 연수 참가자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꾸게 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함



II. B그룹

부제: 서두르지 않지만 치밀하게

작성자: 조성남(단양중 교장), 권화자(마송중양초 교장)

2016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 B그룹 보고서

(2016.2.16-22,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그룹명 : B그룹(서두르지 않지만 치밀하게)

작성자명 : 조성남, 권화자

I.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회인 2016.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된 B그룹 단원들은 일본 연수에 앞서 실시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면서 이 연수의 중요성과 무게감으로 연수에 임하는 마음을 더욱 다잡게 되었다.

먼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받은 후 유네스코학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일본 교육현황 및 역사에 대한 특강을 들은 후 방일 준비사항 및 활동 안내가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 그룹 단원들은 단원 개개인 모두 연수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자세하게 분담하였다.

‘아 이번 연수는 단순한 여행 위주의 가벼운 일정이 아니구나’하는 실감을 하며 연수를 떠나기 전 우리 그룹은 밴드를 개설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모든 단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조언을 나누면서 연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모든 연수 프로그램이 사전에 자세하게 안내되었으며, 안내한대로 차질 없이 알차게 이루어졌다. 현지 연수 시작 오리엔테이션부터 계획한 대로 실시하여 저녁 7시 계획된 시간에 마무리되었다.

우리 단원들은 한결같이 연수 프로그램의 철저한 진행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땀나게 해야 하나’ 하는 불멘소리도 일부 단원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으나 매사 이루어지는 연수 프로그램이 예외 없이 계획대로 실시되는 것을 접하면서 단원들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연수가 진행될수록 진지하게 임하며 하나라도 더 체험하고 배우며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연수 일정을 보냈다.

이렇듯 마음의 문을 열어 일본 연수 프로그램에 임한 우리 단원들 모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내 일본 교육활동에 대해 감동과 찬사를 연발했다. 어쩌면 이렇게 청결한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교육 받는 학생들은 각자의 사물을 잘 정리한 상태에서 교사의 수업활동에 몰입하며 수업에 임할 수 있는지 등등의 놀라움과 부러움에 그저 감탄사만 연발할 뿐이었다.

우리 B그룹 단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번 연수를 통해서 체험하며 접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리하여 이번 연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현장 속에서 유네스코 이념을 구현하여 잘 스며들고 녹아들 수 있도록 하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II. 프로그램 보고서

1. 프로그램 참여 목적

이번 우리 B그룹 단원들이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 목적은 각자의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교사 간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현장 방문을 통하여 두 나라의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그리고 B그룹 단원들이 소속된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학교를 통해서 평화와 인권, 문화간 학습,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한일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빼놓을 수 없다.

2. 학교 및 기관 방문 내용

가. 도키와마츠 중학교 및 고등학교 (2016.2.17(수) 09:00~16:30)

개교 100주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사립여학교로 유네스코학교로 20개국과 교류사업 진행하고 있다. 전교생 대부분 대학 진학(4년제 90%, 단기 및 해외대학 10%)하는 높은 진학률로 3대 주요 학생 교육활동(스포츠대전, 도키와 축제 참여, 음악 콩쿠르)과 중1 ~ 고1 학년의 학생들은 수학과 수준별 통합수업을 3단계 실시하며 학생동아리 활동 활성화하여 방문단을 위한 공연을 선보였다.

1) 교육 활동 참관

■ 원어민 영어교사 수업 : 회화 수업. 기독교의 역사, 성경 관련 일화에 관한 내용의 직소형태 수업으로 4인조로 구성되어 자유롭게 영어로 의사교환을 하여 표현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 체육관을 활용한 PA(Project Adventure) 수업 공개 : 중학교 3학년의 체육 PA 수업으로 함께 조를 짜서 활동하는 수업으로 협동심 증진과 함께 인간관계 증진수업으로 진행되었다. (활동의 예 : 손잡고 함께 농구하기, 등글게 선 배구공 패스, 클라이밍 등)

2) 한국 교원의 수업 실연

한국의 역사와 자유학기제 수업과 한복과 머리 모양 알기, 한복 종이접기, 땡기머리 해보기, 한복(혼례본) 입어보기 체험 수업으로 나누어 2개 반을 진행하였는데, 일본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제도와 전통한복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 방법 훈련 전개 참관

학교에 괴한이 출현했을 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경찰서와 연계하여 실제상황과 같은 훈련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4) 학교주요 시설 시찰

도서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2명의 사서교사 배치로 수업활동의 보조와 학생 개별 독서 지도도 담당하며, 4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재학생만을 위한 수영장 보유하여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상급생이 하급생을 지도하기도 한다. 재난안전 수업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 복도 게시판과 교실 벽은 자료장으로 구성하여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였다. 정돈과 실용이 돋보이는 공간구성과 위 아래로 움직이는 이중 칠판은 활용도가 높게 보인다.

5) 양국 교육 내용 협의 및 시사점

사립학교로 높은 수업료(월 40만엔), 토요일수업일 운영(사립학교 대부분이 주 6일 수업 시행, 스마트폰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등교 시 전원 차단, 일본의 유도리 교육과 자유학기제의 차이점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규율을 준수하는 학생 생활 태도, 토요일 수업 전개를 위한 교직원 근무상황 조정, 방학 중 실시하는 집중수업(자연 친화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산속교실)이 인상적이었다.



나.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 방문 (2016.2.18.(목) 09:30~11:40)

사이타마시는 수원시와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있다. 2개의 축구 구단이 있고,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활발히 유치하는 등 역동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또한 새로운 영어교육을 통해 글로벌 스테디와 국제 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에서 9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일본 교토의 중심지로 주요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1) 사이타마시 학교 교육의 특징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 있게 빛나는 개성을 육성한다'는 교육 종합 비전을 바탕으로 지적체를 겸비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 학업 증진은 물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예체능 활동과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school support network를 통해 교원의 부담을 덜고 학부모와 지역인사의 다양한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시책을 통해 교육 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많은 교류 및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우호관계 증진을 기대하고 있었다.

2) 사이타마시 교직원 연수

5,000여명의 교원 연수 담당 및 체계적인 연수 시행을 위해 연간 380여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기간별 연수로 초임 교사 연수와 10년차 교사 연수는 법으로 이수가 정해져 있고, 방과후 시간 많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법 개선 연수인 power up 등이 있다. 학교장 추천 연수(교육과정담당, 연구주임 연수 등)와 지정연수(관리자 양성, 학년주임 등), 전문성 향상의 형태로 다양한 연수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집합연수 체제인 점이 특이했다.

3) 교원 면허 갱신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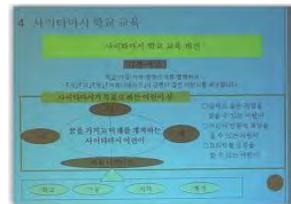
10년을 주기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교원 면허 갱신 제도 시행하고 있다.

4) 수업 명인제 운영

문부성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사이타마시도 학교장의 추천과 심사를 통해 수업 명인 제도 운영한다.

5) 시사점

사이타마현과 시의 분리되어 운영되는 교육위원회 활동,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인사를 교육 현장에 참여시키고 지역 중심의 교육 운영 방법이 학생들에게 고장에 대한 자부심 함양에 효과적인 듯하다. power up 연수로 교사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현장에 있는 교사가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강좌를 열기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과학, 영어 등의 수업을 하는 사이타마시의 특색이 돋보였다.



다. 사이타마시립 시비라키초등학교 방문 (2016.2.18.(목) 13:30~16:30)

1977년 개교로 3학년에서는 곤충이 많은 학교를 만들기, 4학년에서는 애초가 있는 거리 만들기, 5학년에서는 검은 송사리와 지역 환경 이해, 6학년에서는 관동 민들레에 대한 환경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학년인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프로젝트 과정 및 성과물을 후배들에게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배우는 방법에 대한 학습 진행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꿈을 향하여 함께 배워가는 학교'의 교육목표 효율적 운영하며 특색 활동으로 이수계열에 대한 사이타마시 사쿠라구의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코어 사이언스 티처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ICT를 활용한 산수 수업을 도입하여 소수인원 지도, 팀티칭 등 활발한 활동 전개하고 있다.

1) 교수-학습 활동 참관

2학년 체육수업에서 겨울철에도 반바지와 반팔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수업하며 인내력과 체력을 향상, 호루라기 대신 부드러운 음식의 작은 북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는 배려가 돋보였다. 4학년 종합수업은 시에서 주창하는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게임을 통해 같은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느낌을 상호 교환하는 활동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는 시의 교육시책과 잘 어울렸다. 6학년은 한국과 일본의 양국 문화 차이를 사전 조사활동과 전시학습을 통해 발표하고 방문객들에게 심층적인 질문을 통해 활동적인 수업 장면을 보여주었다.

2) 학생 생활 및 환경 구성

예의 바른 수업 태도와 교실과 복도의 벽면 공간을 빈틈없이 활용하여 학생 작품과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일본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걸레를 빨아가며 화장실과 복도 바닥까지 청소하는 성실하고 청결한 생활태도 익히게 하는 생활지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3) 양국 교육 내용 협의 및 시사점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에 대해 한일 모두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시비라키초에서는 일년간 총 3번의 수업 참관과 학부모 공개 활동에서 상담, 가정방문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인내심과 책임감을 증진하는 학생 생활태도(겨울철 반바지, 학생 청소)와 초등학생은 연필 사용으로 제한하며, 바른 글씨 지도 등 엄격한 학교 규율과 교원들의 헌신적인 교육활동(주당 27시간의 수업, 많은 공문서작성, 위급상황에 대비한 운동화착용), 방문단을 고려한 친절함 배려가 인상적이었다.



라. 사이타마시립 사쿠라소특수학교 방문 (2016.2.19.(금) 09:20~12:10)

2012년 개교한 현대화된 시설의 아름다운 학교로 교실 건물 1층, 관리동 2층으로 설계되었다. 지체와 지적 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로 한 학급에 3명씩 총 34명의 학생과 교직원 43명이 근무한다. 시립 최초 실내 온수수영장 보유와 등하교를 위해 리프트 이동이 편리한 스쿨버스 4대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해 아침 등교 후 활력 징후 체크, 맞춤형 급식 제공, 특수교육 상담센터를 병설로 운영하고 있다. 노멀라이제이션 사회에서 개개인이 지닌 힘을 발휘해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하며 거주지 학교 간, 지역사회와 교류 및 공동학습 적극 추진, 자립활동 중심의 일정을 운영한다. 학생 맞춤형 4가지 형태의 특별 식단이 제공되고 지역의 유명 프랑스 요리 셰프가 학생들을 위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우수한 급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특수교육의 센터적 역할을 하고 있다.

1) 시설 및 교수-학습 활동 참관

복도를 메운 학생 활동사진 게시와 작업실, 미술실, 도예 가마실, 보건실, 의료 케어실 등의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시립학교 최초 온수 풀 운영, 에코 스쿨로 가스발전소로 전기를 만들어 온수, 급식, 난방 이용, 재난 시 인근 주민의 대피소로 이용하며 6t 정도의 물을 항시 저장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중등부 수업은 표정 및 움직임 변화를 유도하는 표현력 향상 수업을 고등부 수업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영상을 보여주고 물건의 크기와 길이를 비교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초등 저학년은 특수 제작된 악기 사용한 음악 수업을 초등 중학년 체육수업에서 활동 장면을 교사가 수시로 찍어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학교생활을 가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초등 고학년은 자립활동 수업으로 스스로 몸을 밀어 내려오기를 위해 서두르지 않고 교사가 기다려주는 수업내용이 돋보였다.

2) 시사점

시립병원과 Hot Line을 구축으로 응급상황에 대처(근무간호사는 시립병원의 간호사로 의료진과 긴밀히 연계)하는 시스템 운영, 학생 개별로 보조교사가 배치되고,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수준별 실시, 학생들의 사회활동 정착을 위한 교류 사업(거주지 학교, 학교급간, 지역사회와의 교류), 1인당 1억원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하여 거의 무료로 교육을 받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지역에 특수교육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줄이기 위한 건립 초기의 다양한 노력과 지역사회 센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구상한 점 등이 돋보였다.



마. 사이타마시립 기자키중학교 방문 (2016.2.19.(금) 12:40~16:30)

개교 68주년, 학생 수 905명, 25학급의 규모의 학교이다. 학기는 3학기제로 운영되며, 사이타마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인관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별활동은 다양한 행사와 학생회 등으로 운영되며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력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학습 시간을 운영한다. 또한 정기 시험은 연간 5회이나 일상 교육 속에서도 평가가 이뤄지고 있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동아리는 정규 교과 시간 후 운영하며, 학교 선생님이 담당하고 외부 강사를 사용하지 않아 교사들의 업무가 많음을 엿볼 수 있었다.

1) 교수-학습 활동 참관

- 학생 급식 체험

소박한 메뉴와 양의 학교 급식 체험하였는데 교감선생님의 은은한 전자 올겐 연주와 영양교사의 급식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양을 적게 하고 남기지 않는 근검한 생활 태도가 엿보이며, 가정과 같은 식사 환경을 위해 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교수-학습 및 시설 참관

영어 수업 장면은 수업 내용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정도로 일본의 새로운 영어 교육을 위한 움직임이 왜 태동되었는지 짐작이 가는 장면이었다. 국어 수업은 책걸상을 치우고 바닥에 앉아 카드놀이를 일본 전통 시를 배우는 장면을, 사회 수업은 유인물을 이용한 역사 수업을 진행하였고 음악 수업에서 파트별로 카세트를 이용하여 연습하는 장면과 피아노 앞에 모두 서서 제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체육 수업은 체육복을 입고 머리띠를 하였으며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에서 움직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양국 교육 내용 협의 및 시사점

일본은 교육과정 시수가 예전에는 더 적었는데 학력저하문제로 교육과정 시수를 증가시켰으며 학교장의 증감을 하는 재량권은 없다. 교사들이 학생 동아리 활동을 매일 2시간 무상 지도하고, 휴일과 방학 중 대회 준비 시는 수당이 지급된다. 교사의 보수는 공립, 현립, 사립에 따라 다르고 학교장의 성과평가에 따라 등급이 4단계로 나뉘며 최하 D등급은 월급이 깎인다고 한다. 수업 후 방과후 학생지도, 공문서 작성 등 많은 업무에도 행복하게 근무하는 모습에서 일본인들의 인내력이 엿보였다.



Ⅲ. 프로그램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그 이유

1. 학교(기관) 방문

이번 B그룹 단원들의 학교 및 기관 방문 시 크게 인상을 받은 프로그램은 각급 학교 소개 안내와 수업 참관이었다.

우선 도키와마츠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소개 및 참관 시 모든 교직원들이 우리 단원들을 환영해 주었고, 특히 이와타니 나미 교사의 자세한 설명에 도키와마츠 학교뿐만 아니라 일본 교육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외부 침입자를 잡는 방법훈련을 참관하면서 매사 형식이 아닌 실제 상황을 염두해 두고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사이타마현과 사이타마시가 분리되어 교육위원회 활동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연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한 power up 연수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보다 많은 교사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현장에 있는 교사가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강좌를 열기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과학, 영어 등의 수업을 하는 것은 역시나 지역에 뿌리는 든 사이타마시의 특색 있는 연수제도라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 방문단을 성심껏 맞이한 시비라키초등학교의 준비에 놀랐다. 특히 한국어로 환영해 주고, 소개자료도 한국어로 제작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업 및 학생 관찰을 통해 열정적인 교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우리 방문단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배려나 방문단에게 정답게 인사하는 모습에 거듭 감탄했다.

우리 방문단이 방문한 사쿠라소특수학교에서는 필요한 곳이라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일본의 교육정책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특성화된 특수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놀라웠으며, 특히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해 감동을 받았다.

한국 노래를 연주해 주는 교감선생님의 센스와 교문 밖까지 나와서 한국 방문단을 배웅하는 기사키중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도 잊을 수가 없다. 모든 선생님들이 교실을 개방하여, 보여주기 식이 아닌 평소의 수업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점에 놀랐고 학생들 또한 밝고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2. 가정 방문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정방문에 협조해 주시고 다양한 일본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가정방문 대면식에서는 우리 단원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오는 친절함을 보인 가정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학교방문과 다른 면에서 일본을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일본 주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전통 의상 기모노 체험을 통한 복식 문화 이해, 전통 음식과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주요 교통 수단인 택시, 버스, JR 등 모든 교통 수단을 이해하는 기회도 갖는 등 일본의 다양한 문화체험도 가질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이었다.

이렇듯 우리 방문단은 이번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이타마시의 주요 명소와 관련한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인간 존중의 정신을 깊이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3. 문화 체험

이번 우리 B그룹 단원들은 문화 체험으로 사이타마시 분재촌을 방문하였다. 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세계 최초의 공립 분재 미술관으로 2010년 개관하여 분재를 중심으로 분재 화분, 수석, 회화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시실 안에는 약 아홉 점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도 다다미로 된 방에 자시키(객실)를 진(眞), 행(行), 초(草)라는 세 가지 격식으로 맞춘 분재 장식을 감상할 수 있었다. 정원에는 계절에 따라 제철의 분재 30~40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었다.

분재를 만드는 기술 설명(물주는 요령, 자르는 기술, 모양 만들기, 옮겨심기)을 통해 물주는 기술만 3년 걸리며, 물은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분재는 정면, 낮은 곳에서 위로 보아야 하며 일본 분재의 특징은 작고 아름다운 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도 알려 주었다.

이번 분재 미술관 방문을 통해 우리 B그룹 단원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분재 관리가 무척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분재 만드는 요령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IV. 프로그램 참가 성과와 그 이유

우리 B그룹 단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얻은 소중한 결실은 무엇보다도 일본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 글로벌 스튜디오를 신설하고 해외자매교류를 추진하여 으뜸교육도시를 건설하려는 희망찬 교육설계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시비라키초등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7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기자키중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매우 유사한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교육과정 중 '인관관계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편제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도키와마츠학원 여학교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중점교육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탐구하는 여성을 기르는데 교육목표가 모아져 있었다. 4년제 미술대학과 연계되어 있어서 예능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도 특징적이었다. 학교 시설의 청결함과 학생들의 단정함 외모도 눈에 띄었다.

사쿠라소특수학교에서는 일반인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멀라이제이션 사회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함께 살아가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조건에 부합하는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특수교육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놀라웠다.

이렇듯 모든 학교와 기관에서 쉬우면서도 뚜렷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교육현장에서 착실하게 실천해 가고 있는 점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

V. 프로그램 활동 경험 적용 계획

우리 B그룹 연수단은 이번 한일 교사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다.

일본의 초·중등교육기관과 특수학교,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였으며, 가정방문과 문화 탐방의 시간도 가졌다. 매일 오전 또는 오후 시간 내내 학교의 교육활동을 참관하면서 경험한 소중한 사례들을 우리들이 소속된 학교현장에 적용해 보기로 입을 모았다.

우선은 외형적인 것이지만 일본의 교육환경처럼 교실, 복도 및 각종 교육 시설을 보다 더 관리를 잘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겠으며, 견고하게 자리잡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태도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 교사 내에 떨어진 휴지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오래된 듯한 도서관의 책상과 의자도 청결하게 유지되어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환경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결과물을 짜임새 있게 게시

하였으며, 학생들의 교복 입은 상태와 개인 비품 정리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아울러, 수업방법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교육정보화 기기의 홍수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교사와 학생이 대면하면서 소통하고 진행하는 수업 방식으로의 되돌림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래야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조금은 더 집중된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모든 학교 참관을 통해 받은 공통된 인상은 정돈된 학교 환경,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대화식 수업, 어디에서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배려의 마음 등이다. 이러한 인성과 수업방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우리의 부족한 교육현실을 조금이나마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VI. 향후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제안

우리 B그룹 연수단은 이번 한일 교사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과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 준비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안내해 주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 연수단을 정성껏 배려해 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일본 유네스코아시아 문화센터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수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드려 본다.

우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조금은 더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번에도 한복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미리 준비해 간 한복을 활용하는 기회가 조금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나 싶다.

다음으로는 실제적인 일본인의 생활문화에 대해 사전 소개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약한 감기 증상으로 특수학교 방문 일정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B그룹 단원이 있었는데 이처럼 철저한 특수학교의 내부 환경을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나 정보 제공 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었으면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싶다. 더불어 간단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거나 차가운 음식으로 점심을 들게 되는 경우 등 일본의 1인식 문화인 '이치닌 마에' 문화에 대한 사전 안내도 더 있었으면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았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가정방문 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가정방문을 위한 사전 조 편성 시 언어 구사 정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조 편성을 하면 가정방문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가정방문 관련 사전 정보가 조금 더 세심하게 제공된다면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B그룹 연수 후기

♥ 유네스코가 지정한 학교들을 방문 및 참관하면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새롭고 많은 교육적 접근방법이 있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이념과 공교육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늘 새로운 것보다는 전통을 고수하는 일본 교육에서 감동받았습니다.

탈무드에 '자식을 사랑할수록 멀리 보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유네스코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닫고 한국교육과 일본교육의 차이점 -유네스코 교사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학교, 학년, 학급교육과정에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 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유네스코에 깊고도 넓은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 최재은(광주교대부설초)

♥ 본 방일연수에 참여하여 하루하루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갑니다. 우선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와 일본 ACCU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문 일정 하나하나 많은 신경을 써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국제교에서 유네스코 학교 업무 담당 및 국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이러한 방문단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일본의 학교들을 방문하며 많은 것이 부족했음을 느끼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방문단을 환영해 주시고 수업 공개와 학교 안내를 해주시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까지 따뜻하게 배웅해주신 각 학교 선생님들에게 일본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갑니다. 일본의 학교를 예방하며 무엇보다 ESD에 대한 오랜 역사와 실천 사례를 체험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학교의 교칙과 학생들의 습관은 본교에서도 꼭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 김정은(인천국제교)

♥ 유네스코 한일교사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문화와 교육에 대한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학교도 해마다 많은 외국에서 교육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 있는데 담당자로서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더 성의 있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교사의 열정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음을 느꼈으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감동적인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감동은 같은 그룹의 멋진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된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유네스코에서 추구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작게는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영미(서울사대부설여중)

♥ 오리엔테이션 만남에서 말씀 드렸듯이 생각지 않게 한일교사연수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옮기면서 유네스코학교를 처음 접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는데도 연수에 참가하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안에서 한일양국도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각지에서 모인 선생님들과도 함께여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김미선(수춘초)

♥ 우선 방일 프로그램 연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수를 좋아하는 편이라 많이 참여했는데 이렇게 알차고 보람된 연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급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우리를 맞이하실 때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수단 내에서도 여러 도에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전체 모임에서도 따뜻하게 서로 아껴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 최세라(봉일천중)

♥ 유네스코 방일 프로그램을 통한 일본 학교방문을 통해 '기초.기본교육'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기본이 탄탄한 교육을 통해 질서와 배려의 습관들이 작은 움직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일본인들의 친절함과 검소함에서 일본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 녹아있는 일본의 ESD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며, 환경을 중시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노력들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방일프로그램을 통한 한일양국의 다양한 문화적 접근들이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는데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했던 소중한 우리 B팀, 좋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유선(안현초)

♥ 2016 한국 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를 방문하며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가장 기

역에 남은 것은 일본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위하며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철저히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생활 방식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16 한국 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은 각국의 교사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혜(양성초)

♥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정치적 문제로 가깝지만 먼 나라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분에서만 보면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나라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은 우리보다 우월함에도 일반학교의 시설과 비품은 우리의 학창시절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면을 먼저 개선하기 위해 힘쓴 우리나라와 학생들의 생각과 태도를 타인에 대한 배려 중심으로 가르치는 일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교류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저에게 이번 교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깊은 고민을 갖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ACCU 선생님들, 일본 방문학교 선생님들, 유네스코한국위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배호영(전남교육청)

♥ 이번 한일교류회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선생님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샘들을 만나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빡빡한 일정으로 후회하기도 했지만 일본교육과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우리팀 공연, 보고회 발표 등은 짱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문우철(함덕중)

♥ 이번 프로그램은 각자가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성찰하면서 우리가 교사로서 교육을 고민하는 교직원으로서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함께 실천하면서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녁이면 도쿄의 거리를 걷다가 아무 주점이나 식당에 들어가 보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경험, 책 한권을 사기 위해 도쿄 서점을 몇 군데 돌아다녀보는 경험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방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로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하자고 약속한 것은 좋은 성과였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아들딸에게 이웃의 토토로 주제가 산보를 불러주었습니다. 다시 일본 가고 싶네요. ACCU 관계자분과 가정방문을 마치고 난 다음 바로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함을 열어보니 벌써 답장 메일이 와 있네요. ㅋㅋ

- 정용주(염경초)



III. C그룹

작성자: 안준표(진경여고 교사)

2016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 C그룹 보고서

(2016.2.16-22, 일본 나가노현)

그룹명 : C 그룹

작성자명 : 진경여자고등학교 교사 안준표

I.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서 실제 방일 프로그램 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준비가 있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일본 측의 노하우가 있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각자 맡은 임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대표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합심하여 잘 마무리 지었다.

방일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개회식을 시작으로 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의 치밀함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듯 했고, 방문하는 학교와 가정에서도 교사와 학생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기사님까지도 친절함과 따스함이 배어 나왔다.

비록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본 방문을 꺼리는 이들이 많이 있으나, 금번 단기간의 방일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에게 일본 도쿄 및 나가노 지역의 학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일본 교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II. 프로그램 보고서

1. 프로그램 참여 목적

한일 교직원 방문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 교육부장관의 합의 하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일본의 교직원이 상호 방문을 하는 내용이다. 주로 상대국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양국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양국 교육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C그룹의 프로그램 참여 주목적은 쇼와여자대학교 부속 여자 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나가노 현에서의 학교 및 직업학교, 양호학교(특수학교), 그리고 동립 도서관 등을 탐방하면서 각급 학교의 실태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특히 각급 학교의 프로그램과 일본 학교의 교육 방침 등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 교육에 적용할 부분을 찾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겠다. 더불어 나가노현에 소재하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된 오부치 동립 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소규모 지방 자치단체와 마을의 재정 자치 실현에 대해서도 이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 학교 및 기관 방문 내용(학교 개요 및 특징 위주)

1) 쇼와 여자대학교 부속 여자중고등학교

쇼와 여자대학교 부속 여자중고등학교는 도쿄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사립학교로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함께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920년 시인 히토미 엔키치(Enkichi Hitomi)가 그의

부인과 함께 설립한 곳이다. 세상의 빛이 되자라는 이념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쇼와여대 부속여중고는 2012년 10월 ASPnet에 가입했으며, 세상의 빛이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교내의 환경이 깔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특히 화장실 앞에는 분리수거를 위한 여러 가지의 통이 있었는데, 캔과 유리, 플라스틱, 비닐,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뚜껑도 따로 분류하고 있었다.



화장실 앞에 놓여진 분리수거 통



수업중인 교실의 모습

한국에서도 유리병 뚜껑이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많은데, 분리수거하면서도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많다. 아예 뚜껑을 따로 버리게 함으로써 분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SD에 관한 교육도 잘 되어 있었고, 학생들도 환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다.

2) 나카노니시 고등학교

나카노니시 고등학교는 나가노현에 있는 나카노시에 위치한 학교로서 우애, 창조, 탐구, 진로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학교이다. 1984년 설립된 학교로서 ESD(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커다란 지표 하에 국제 이해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교육을 특히 중시하고 있는 학교이다.

전교생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알아가는 COL(청소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개교 이래 행해지는 전통행사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나가노현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학교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1학년의 경우 공통이며, 2학년에 들어서는 국제계열, 이문계열, 수리계열로 나뉘어지고, 3학년에서는 진로에 따라 사립문과계열, 국공립문과계열, 교양전문직계열, 사립이과 및 간호계열, 국공립이과계열 등으로 나뉘어진다. 계열에 따라 과목 선택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설정에 따라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과목을 배우는 것으로 보여진다.



환영 연주를 하는 나카노니시교 합주단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수업

3) 나가노 양호학교

나가노 양호학교는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 특수학교로써 1961년 개교하였다. 열심히 하자, 건강하자, 당당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학생이 200명 정도에 교사가 120명으로 학생 2명을 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학생들에게 1:1 개별 교육에 보다 더 중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하여 교내에서 학생 사진 찍는 것을 금하고 있다.



양호학교 학생이 그린 태극기



양호학교의 맛있는 점심식사

4) 나가노니시 고등학교

나가노니시 고등학교는 개교 120년의 역사가 있는 학교로써 학교에는 보통과와 국제교양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 학교의 국제교양과는 풍부한 국제 감각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 가까운 국보 전코지(사찰)에서 학생들이 영어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이드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교양과는 9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보통과 역시 85%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나가노니시 본관 앞에서 기념사진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선생님

5) 나가노현 교육위원회(교학지도과)

나가노현 교육위원회는 현청 사무실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과 달리 교육감(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다. 교육위는 교육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이며, 교육 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교학지도과는 공립 초중고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으며, 진로지도와 유아 교육의 진흥 등의 업무가 있다.

6) 오부세 동립 도서관(마치 도서 테라스)

오부세 동립 도서관은 오부세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 도서관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이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별명인 마치 도서 테라스는 마을 도서관에서부터 (세계를) 밝히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도시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와 창조를 즐기는 거점으로 활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아쉬운 점은 10명 가까이 되는 직원 중 정규직은 관장 1명뿐이며, 나머지는 계약직이라는 것인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점 때문이라고 한다.



오부세 도서관 관장의 환영사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시민들

Ⅲ. 프로그램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그 이유

1. 학교(기관) 방문

학교 방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나가노현 양호학교였다. 특수학교인 이곳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심지어는 거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세심하고 신경 써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수고로움을 느꼈다.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지만, 수업 및 체험 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의 특기를 살려 물건을 만드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자신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포장되는 데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몇몇 선생님이 현장에서 그들의 물건을 구매하자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2. 가정 방문

C그룹 교사들은 대개 2인 혹은 3인이 1개조가 되어 일본 가정을 방문했다. 일본 가정은 대체로 비싼 집값의 영향으로 한국에 비해 면적이 넓지는 않았으나, 주차 공간 등은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보였다. 가정마다 조금씩은 달랐지만,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았고, 일본의 대표적 식사인 스시(초밥)를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매우 좋았다.



일본 교사들과 함께



일본 가정에서의 저녁식사

3. 문화 체험

나가노니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옆에 있는 젠코지(善光寺)라는 절을 방문했다. 젠코지는 일본 3대 사찰 중 하나로써 백제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전파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이다. 부여 왕릉에서 발견된 문양이 이곳 젠코지에서도 발견되었다. 국보로 지정된 웅장한 크기의 본당을 비롯하여 빨간 목도리를 두른 청동 불상들은 이색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이곳의 불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절 가운데 하나라는 젠코지는 조용한 지방 나가노에서 많이 알려진 관광지 중 하나이다.



젠코지에서 전체 기념촬영



절 안내를 해 준 나가노니시고교 학생들과

4. 기타

나가노현에서 방문한 곳 중 또한 기억에 남는 곳은 일본 원숭이가 집단 서식하는 지고쿠다니 야생 원숭이 공원이었다. 이곳은 해발 850미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1년 중 3분의 1 이상이 눈에 덮여 있다. 가파른 절벽과 군데군데 땅에서 올라오는 증기로 인해 옛 사람들은 지옥 계곡(지고쿠다니)라고 불렀다. 이곳에는 일본 원숭이가 야생으로 서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쉬운 점은 겨울이어서인지 몰라도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듯한 이 장면에서 생명을 살리는 모습도 보였으나 야생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고 길들여진 모습이 아쉬웠다. 날이 추우면 온천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원숭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문한 당일은 날이 그리 춥지 않아서인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원숭이들이 많았고, 온천에 들어가 있는 원숭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귀를 파 주고 있는 원숭이(모녀로 추정)



온천에서 먹이를 먹는 원숭이

IV. 프로그램 참가 성과와 그 이유

프로그램 참가 성과 및 소감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겠다.

첫째, 일본 각 지역의 다양한 학교와 기관을 둘러보고 일본 학교 교육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우수한 학생이 모여 있는 도쿄의 사립 여중고와 지방 현의 일반고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했는데, 수업을 참관하거나 직접 수업을 해 보면서 수업방식과 학생들의 수업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일본의 ESD 교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를 비롯하여 많은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강조를 했다. 특히 쇼와여대 부속 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 적용하고 활용해보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셋째, 방문한 학교에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일본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쿄의 학생들은 한국 음식이나 K-POP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고, 한국어를 하는 학생도 있었다. 나가노 역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수업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며, 한복을 입어 보는 체험에는 매우 즐거워했다.

넷째, 일본 교사와 학생들의 몸에 밴 친절함과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매번 학교를 방문하고 떠날 때 교사와 학생들은 우리가 탑승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전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비단 학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고, 우리와 함께 한 버스 기사 역시 항상 친절한 미소로 대해 주었다. 보고 배울 점이라 생각된다.

V. 프로그램 활동 경험 적용 계획

일본에서 느꼈던 다양한 내용을 국내에서 적용해 보려고 한다.

1. 지속 가능 발전교육에 대한 일본의 활동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교육에 적용하고자 한다.
2. 일본인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대해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외국인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본다.
3. 학교 폭력 문제는 모두가 겪는 문제인데, 일본의 해결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도 고민해본다.

4. 나가노 양호학교에서 보았던 학생들처럼 우리 모두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

5.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및 지역 기업 육성을 통해 지방이 발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본다.

VI. 향후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제안

일본의 학교들이 한국과 교류를 희망하는 곳이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국 간의 더 많은 교류를 통해 ESD 교육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과 과거사 인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감정싸움이 아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의 자치단체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으니 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학교와 교류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며, 행정기관에서의 현지 방문에서도 교육기관 방문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으니 교육기관에서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카노니시 고등학교에서 일본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교사들이 외국 학교에서의 수업이 매우 큰 경험이라고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수업에 관한 부분을 배정하여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고 계획을 잘 짜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연수를 마치고

* 몇 사람의 소감 및 사진을 첨부합니다.

김경배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인물이 좋아 대표를 맡은 김경배입니다. 이번 연수는 일본 문화의 진수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C그룹과의 소화제 인연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영원히 이어졌으면~~~ㅎㅎㅎ
정하경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분석하지 않아도, 결론을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번 프로그램은 많은 것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교육의 소중함, 인간에 대한 사랑의 소중함 그리고 아직은 잠들지 않은 교육에 대한 나의 열정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본 속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한 뜻 깊은 방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고병대	스노하라 아키오" 나가노현의 나가노현교육청 교학지도과" 장학관과의 재회가 제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8월 28일(금)날 한일교사 대회에 일본 측 대표로 저희 순천팔마고등학교를 방문하셨고, 그 다음날 오후에는 저의 집 가정방문 파트너로서 순천시 재래시장 등 투어를 함께하였으며, 저녁에는 저의 집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저녁상을 함께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움이 더했습니다.

김은미	<p>도서관이 단순히 책 읽는 장소에서 벗어나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똘똘 뭉쳐 교류와 창조를 즐기는 문화 장소의 역할을 해내고 아이들을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도서관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려는 문화풍토가 한없이 부러웠다.</p> <p>'마치도서 테라소'라는 작은 마을 도서관하나가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풍요로운 오부세 동 마을로 성장시킨 보물이며 원동력인 것 같다.</p>
김대환	<p>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교류행사, 토의 등의 경험은 아마 평생에 한번 하기 힘든 귀한 체험이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여러 준비와 서포터를 해주신 유네스코 담당자 분께 감사드리며 출발부터 귀국까지 한 번도 불미스런 일이나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소화제를 강조하신 대표님 이하 전 C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p>
이정님	<p>가장 마음속에 부러움이자 여운으로 남은 곳은 양호학교 방문이었습니다. 교사1명당 학생2~3명을 담당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시스템에서 기대보다 교육시설 및 교실환경 등이 낙후되었다는 생각을 뒤엎는 진정한 복지정책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p>
정윤자	<p>나가노의 학생과 선생님들의 만남은 가슴 설레는 추억으로 남아있고 노래의 여운은 아직도 흥겨운데 니들은 알까? 원숭아. 시간이 지나도 소중하게 아름답게 빛나리.</p>
김진희	<p>나카노니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반 학생들을 나가노에서 나리타로 이동하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던 일이 너무도 신기했던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반가움의 인사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눴거든요. 학생들이 참 정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을 순화시켜주는 순박한 학생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함께 했던 C조 모든 분들의 열정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이 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 고맙습니다!!</p>
황지화	<p>처음 방문하게 된 일본의 교육위원회, 학교 등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했던 연수였습니다.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의 교육현장의 고민은 비슷한 것 같았으나 전반적으로 일본의 교육에 대하여 느낀 점은 교육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강조되고 있는 교육지표가 조금씩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나가노현의 교육정책을 보면서 몇 가지가 인상 깊었습니다.</p>
안준표	<p>첫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인들의 친절함과 가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절제되고 배려할 줄 아는 일본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인정해줄 날이 오게 되기를 기원한다.</p>



환영 연주를 하는 나카노니시고 합주단



학교 바깥까지 나와서 환송하는 학생들



교직원 만찬회에서의 한국 교직원 합창



일본 교직원의 답가 제창



쇼와여대 부속 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나리타공항 근처에서 먹은 첫 식사.



수업을 마치고 일본 학생들과 기념사진



보고회를 마치고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며



제 3장 부록

I. 참가자 명단

A그룹 명단

그룹리더: A11 김동식

그룹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지역
A	01	안승렬	동삭초등학교	교장	경기
A	02	차재원	석봉초등학교	교장	경남
A	03	최승애	목일중학교	교장	서울
A	04	최승욱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감	서울
A	05	강인구	순천왕지초등학교	교사	전남
A	06	함재우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교사	경기
A	07	한봉희	용강중학교	교장	서울
A	08	허순행	순천팔마고등학교	교장	전남
A	09	임흥빈	상당고등학교	교감	충북
A	10	김봉수	귀둔초등학교	교사	강원
A	11	김동식	반포고등학교	교장	서울
A	12	김덕보	조천중학교	교장	제주
A	13	김재환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서울
A	14	김명동	봉일천고등학교	교장	경기
A	15	김성민	어방초등학교	교사	경남
A	16	김용철	월촌중학교	교장	서울
A	17	고득환	영선중학교	교사	전북
A	18	고은주	진건중학교	교사	경기
A	19	고경희	송화초등학교	교사	강원
A	20	구선영	보성여자중학교	교감	서울
A	21	권오우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강원
A	22	이병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경기
A	23	이동재	신용산초등학교	교장	서울
A	24	이혜경	선일여자중학교	교사	서울
A	25	이종복	문성중학교	교장	경북
A	26	이종미	별말초등학교	교장	경기
A	27	이수정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서울
A	28	이미화	부산국제중학교	교사	부산
A	29	오동석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충남
A	30	박향준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사	제주
A	31	박석현	안현초등학교	교사	경기
A	32	박승호	명도초등학교	교사	경남
A	33	박소연	박달초등학교	교사	경기
A	34	류동윤	충남고등학교	교사	대전
A	35	송진숙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부산
A	36	송관영	양산초등학교	교장	충북
A	37	윤현정	웅천초등학교	교사	전남
A	38	박은숙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세종
A	39	홍보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책임담당관	서울

B그룹 명단

그룹리더: B21 김성열

그룹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지역
B	01	배호영	전라남도교육청	주무관	전남
B	02	최재은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교사	광주
B	03	최세라	봉일천중학교	교사	경기
B	04	정채기	문산수역중학교	교장	경기
B	05	한기환	한국교원대부속월곡초등학교	교장	충북
B	06	한상영	해미중학교	교감	충남
B	07	장수미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무관	울산
B	08	정용주	염경초등학교	교사	서울
B	09	진유선	안현초등학교	교사	경기
B	10	조성남	단양중학교	교장	충북
B	11	곽영문	청주신흥고등학교	교장	충북
B	12	강문석	신송중학교	교사	인천
B	13	강영미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서울
B	14	김보현	양강초등학교	교감	충북
B	15	김익준	서귀포중학교	교사	제주
B	16	김일환	대덕고등학교	교감	대전
B	17	김정은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인천
B	18	김경순	탄현중학교	교사	경기
B	19	김미선	수촌초등학교	교사	충남
B	20	김순례	교문중학교	교장	경기
B	21	김성열	순천왕지초등학교	교장	전남
B	22				
B	23	곽태현	충청북도교육청	주무관	충북
B	24	권화자	마송중앙초등학교	교장	경기
B	25	이은혜	양성초등학교	교사	경기
B	26	이정희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사	서울
B	27	이진숙	백사초등학교	교감	경기
B	28	이명신	한솔중학교	교장	세종
B	29	민웅기	아산성심학교	교사	충남
B	30	문우철	함덕중학교	교장	제주
B	31	나미경	도원초등학교	교감	전남
B	32	오장환	시흥은행중학교	교감	경기
B	33	박경재	고삼초등학교	교사	경기
B	34				
B	35	송경미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	충남
B	36	육상숙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무관	대전
B	37				
B	38	이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담당관	서울

C그룹 명단

방일단장: C01 박흥순

그룹리더: C19 김경배

그룹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지역
C	01	박흥순	선문대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원장,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 부위	서울
C	02	안수영	창원과학고등학교	원장 교장	경남
C	03	안준표	진경여자고등학교	교사	전북
C	04	조준호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경기
C	05	최정순	송현여자고등학교	교사	대구
C	06	최태중	흥덕고등학교	교사	충북
C	07	전상기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전북
C	08	전혜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교사	경기
C	09	황지화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인천
C	10	장옥진	보정고등학교	교사	경기
C	11	정하경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경북
C	12	정완채	대전복수고등학교	교감	대전
C	13	지경림	경일고등학교	교사	경북
C	14	정윤자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사	대구
C	15	김대환	부산국제고등학교	교사	부산
C	16	김은미	목포덕인고등학교	교장	전남
C	17	김진희	문산수역고등학교	교사	경기
C	18	김기현	안동영명학교	교사	경북
C	19	김경배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충북
C	20	김석순	제주중앙고등학교	행정실장	제주
C	21	김태분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교감	인천
C	22	김태석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교감	충남
C	23	김수빈	해강고등학교	교사	부산
C	24	고병대	순천팔마고등학교	교사	전남
C	25	구소형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대전
C	26	이병만	상명고등학교	교사	서울
C	27	이정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세종
C	28	이지혜	하남고등학교	교사	경기
C	29	이태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광주
C	30	이용우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전남
C	31	나종욱	민족사관고등학교	교감	강원
C	32	오석규	서울고등학교	교장	서울
C	33				
C	34	신혜정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교사	서울
C	35	심예원	성포고등학교	교사	경기
C	36	배선연	교육부	차관실	세종
C	37	이선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특별보좌관	서울
C	38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서울

전체 프로그램 (도쿄) / 全体プログラム(東京)

제1일(第1日)	2월16일 (화)	2月16日(火)
09:05 11:35 13:15-14:00 15:30 16:00-16:45 17:00-17:45 18:00-19:00	서울(인천공항) 출발(KE701) 도쿄(나리타공항) 도착 점심식사(나리타시내) 호텔 체크인 오리엔테이션(선샤인 시티 5층 회의실 "Room 15") 개회식(선샤인 시티 5층 회의실 "Room 15") 강의 "일본의 초등 중등 교육의 개요" 저녁식사(각자) 복장: 세미정장 숙박: 선샤인 시티 프린스 호텔	ソウル(仁川空港)発 (KE701) 東京(成田空港)着 昼食(成田市内) ホテルチェックイン オリエンテーション(サンシャインシティ5階コンファレンスルーム「Room 15」) 開会式(サンシャインシティ5階コンファレンスルーム「Room 15」) 講義「日本の初等中等教育の概要」 夕食(各自) 当日の服装: ビジネスカジュアル 当日の宿泊: サンシャインシティプリンスホテル
제2일(第2日)	2월17일 (수)	2月17日(水)
09:30 10:30-15:00 16:00 07:45 8:30-15:30 16:15 08:45 09:40-15:30 16:30 18:30-20:30	<Group A> 호텔 출발 지바현립 나가레야마 오타카노모리고등학교 방문 (도시락) 호텔 도착, 저녁식사(각자) <Group B> 호텔 출발 도키와마쓰학원 중학교·고등학교 방문 (도시락) 호텔 도착, 저녁식사(각자) <Group C> 호텔 출발 쇼와여자대학교부속 쇼와중학교·고등학교 (도시락) 호텔 도착, 저녁식사(각자) <사전 신청자> 한일저녁교류회 (호텔로비 집합) 복장: 세미정장 숙박: 선샤인 시티 프린스 호텔	<Group A> 호텔발 千葉県立流山おおたかの森高等学校 訪問 (弁当) ホテル着、夕食(各自) <Group B> 호텔발 トキワ松学園中学校高等学校訪問 (弁当) ホテル着、夕食(各自) <Group C> 호텔발 昭和女子大学附属昭和中学校・高等学校訪問 (弁当) ホテル着、夕食(各自) <事前申請者のみ> 日韓夕食交流会 (ホテルロビー集合) 当日の服装: ビジネスカジュアル 当日の宿泊: サンシャインシティプリンスホテル

A그룹 (도쿄도 고마에시) / Aグループ (東京都狛江市)

제3일(第3日)	2월18일 (목)	2月18日(木)
8:30	호텔 출발(체크아웃), 버스로 이동	ホテル発(チェックアウト)、バスにて移動
10:00-12:00	고마에시 교육장 예방	教育長表敬訪問
12:10-13:00	점심식사 (잭팟 고마에)	昼食(ジャックポット狛江)
13:15-16:15	고마에시립 고마에제6초등학교 방문	狛江市立狛江第六小学校訪問
16:40-17:15	중앙도서관 견학	中央図書館見学
18:00-20:00	환영만찬회	歓迎レセプション(エコルマ6階展示・多目的室)
20:45	호텔 도착	ホテル到着
	복장 : 정장 숙박 : 호텔 가지가야 플라자	当日の服装 : ビジネス 当日の宿泊 : ホテル梶ヶ谷プラザ
제4일(第4日)	2월19일(금)	2月19日(金)
08:30	호텔 출발	ホテル発
9:15-10:15	고마에시 병, 캔 재활용 센터	狛江市ビン・缶リサイクルセンター見学
10:30-11:15	고마에시립 고민가원 견학	狛江市立古民家園見学
11:30-13:15	고마에시립 이즈미초등학교 방문 (급식교류)	狛江市立和泉小学校訪問(給食)
13:30-16:50	고마에시립 고마에제1중학교 방문	狛江市立狛江第一中学校訪問
17:30	호텔 도착, 저녁식사(각자)	ホテル着、夕食(各自)
	복장 : 세미정장 숙박 : 호텔 가지가야 플라자	当日の服装 : ビジネスカジュアル 当日の宿泊 : ホテル梶ヶ谷プラザ
제5일(第5日)	2월20일 (토)	2月20日(土)
08:15	호텔 출발	ホテル発
9:00-9:50	고마에시립 미도리노 초등학교 방문	狛江市立緑野小学校訪問
10:00-12:00	한일교육교류회 (고마에시립 미도리노초등학교)	日韓教育交流会(狛江市立緑野小学校)
12:00-13:00	점심식사 (고마에시립 미도리노초등학교)	昼食(狛江市立緑野小学校)
13:30-14:30	센류지 견학	泉龍寺見学
14:45-15:00	오하야시(전통음악) 감상 (중앙공민관)	お囃子鑑賞(中央公民館)
15:00-16:00	평가회 (발표준비)	情報共有会(中央公民館)
16:00	가정방문 대면식 (중앙공민관)	ホームビジット対面式(中央公民館)
20:00	가정방문 종료 (시민관장 집합)	ホームビジット終了(市民広場集合)
20:45	호텔 도착	ホテル着
	복장 : 세미정장 숙박 : 호텔 가지가야 플라자	当日の服装 : ビジネスカジュアル 当日の宿泊 : ホテル梶ヶ谷プラザ

B그룹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 Bグループ(埼玉県さいたま市)

제3일(第3日)	2월18일 (목)	2月18日(木)
08:30	호텔 출발 (체크아웃)	ホテル発
09:15	사이타마시립 교육연구소 도착	さいたま市立教育研究所到着
9:30-10:00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 예방 (사이타마시립 교육연구소 제5연수실)	さいたま市教育委員会表敬訪問 (さいたま市立教育研究所第5研修室)
10:10-11:40	사이타마시 교육개요설명	さいたま市教育概要オリエンテーション
12:00	출발	出発
12:15-13:00	점심식사 (이치겐 무사시우라와점)	昼食(いちげん武蔵浦和店)
13:30-16:30	사이타마시립 시비라키초등학교 방문	さいたま市立新開小学校
17:00	호텔 도착, 체크인	ホテル着、チェックイン
18:00-20:00	환영교류회 (라프레 사이타마 2층 레스토랑 "SALUTE")	歓迎交流会(ラフレさいたま 2階 レストラン「サルーテ」)
	복장 : 정장 숙박 : 라프레 사이타마	当日の服装 : ビジネス 当日の宿泊 : ラフレさいたま
제4일(第4日)	2월19일(금)	2月19日(金)
09:15	호텔 출발	ホテル発
9:45-12:15	사이타마시립 사쿠라소특수학교 방문	さいたま市立さくら草特別支援学校訪問
12:45-16:30	사이타마시립 기자키중학교 방문 (급식체험)	さいたま市立木崎中学校(給食体験)
17:00	호텔 도착, 저녁식사(각자)	ホテル着、夕食(各自)
	복장 : 세미정장 숙박 : 라프레 사이타마	当日の服装 : ビジネスカジュアル 当日の宿泊 : ラフレさいたま
제5일(第5日)	2월20일 (토)	2月20日(土)
09:00	호텔 출발	ホテル発
09:30-11:00	분재 미술관 방문	盆栽美術館訪問・見学
11:30-12:30	평가회 (발표준비)	情報共有会(見沼グリーンセンター 会議室)
12:30-13:30	점심식사 (도시락)	昼食(弁当)
13:30-14:00	가정방문 대면식	ホームビジット対面式
14:00-20:00	가정방문 (저녁식사)	ホームビジット(夕食含む)
20:00	호텔 도착	ホテル着
	복장 : 캐주얼 숙박 : 라프레 사이타마	当日の服装 : カジュアル 当日の宿泊 : ラフレさいたま

C그룹 (나가노현) / Cグループ (長野県)

제3일(第3日)	2월18일 (목)	2月18日(木)
08:00 12:30-13:15 13:30-17:00 18:30-20:30 20:45	호텔 출발 점심 식사 (신슈 프룻랜드 신슈 나카노 인터점) 나가노현 나카노니시고등학교 방문 한일교직원 만찬회(나가노시내 연회장 "야마자야") 호텔 도착 복장 : 정장 숙박 : 치산그랜드 나가노	호텔발 昼食(信州フルーツランド信州中野インター店) 長野県中野西高等学校訪問 日韓教職員交流夕食会(長野市内宴会場 やま茶屋) ホテル着 当日の服装: ビジネス 当日の宿泊: チサングランド長野
제4일(第4日)	2월19일(금)	2月19日(金)
08:30 09:30-12:40 14:00-15:40 16:00-17:30 19:00	호텔 출발 나가노현 나가노양호학교 방문 (급식체험) 나가노현 나가노니시고등학교 방문 (젠코지 학생가이드 포함) 나가노현 교육위원회 예방 온천 호텔 도착 복장 : 정장 숙박 : 요로즈야 어넥스유라쿠안	호텔발 長野県長野養護学校訪問(給食) 長野県長野西高等学校訪問(生徒による善光寺ガイド含む) 長野県教育委員会表敬訪問 温泉旅館着 当日の服装: ビジネス 当日の宿泊: よろづやアネックス湯楽庵
제5일(第5日)	2월20일 (토)	2月20日(土)
08:00 08:30-10:30 11:30-12:30 13:00-14:00 14:00-15:00 15:00-15:30 16:30-17:00 20:30	호텔 출발 지고쿠다니 야생 원숭이 공원 견학 ※날씨가 안 좋을 때: 세계의 민속 인형박물관 견학 오부세동립 도서관 "마치도서 테라스" 방문 점심 식사 (도시락 / 나카노니시고등학교 회의실) 평가회 (발표준비 / 나카노니시고등학교 회의실) 나가노시주변가정 가정방문대면식(나카노니시고등학교 회의실) 나가노시주변가정 가정방문대면식(TOiGO 학습실) 가정방문 종료, 호텔 도착 복장 : 캐주얼 숙박 : 치산그랜드 나가노	호텔발 地獄谷野猿公苑見学 ※天候不良の場合: 世界の民俗 人形博物館見学(雛人形) 小布施町立図書館「小布施まちとしょテラス」訪問 昼食(弁当、中野西高等学校会議室) 情報共有会(中野西高等学校会議室) ホームビジット対面式(長野市近郊受入れ家庭、TOiGO 学習室) ホームビジット終了、ホテル着 当日の服装: カジュアル 当日の宿泊: チサングランド長野

※날씨에 따라 스케줄 변경 가능성이 있음

※天候により、予定変更の可能性あり

전체 프로그램 (나리타) / 全体プログラム(成田)

제6일(第6日)	2월21일 (일)	2月21日(日)
10:30	<Group A> 호텔 출발(체크아웃)	<Group A> ホテル発(チェックアウト)
10:30-12:30	고마에시에서 나리타시로 이동	狛江市から成田市へ移動
10:30	<Group B> 호텔 출발 (체크아웃)	<Group B> ホテル発(チェックアウト)
10:30-12:30	사이타마시에서 나리타시로 이동	さいたま市から成田市へ移動
8:00	<Group C> 호텔 출발(체크아웃)	<Group C> ホテル発(チェックアウト)
8:00-12:30	나가노현에서 나리타시로 이동	長野から成田市へ移動
12:30-13:30	<전체> 점심 식사 (스타미나 타로 나리타점)	<全体> 昼食(すたみな太郎成田店)
14:00	호텔 체크인	ホテルチェックイン
14:30-17:00	보고회 (나리타 엑셀 호텔 도큐 지하1층 "엑셀")	報告会(成田エクセルホテル東急 地下1階「エクセル」)
18:00-20:00	폐회식, 환송 리셉션 (나리타 엑셀 호텔 도큐 지하1층 "엑셀")	閉会式・歓送レセプション(同会場)
	복장 : 정장 숙박 : 나리타 엑셀호텔 도큐	当日の服装: ビジネス 当日の宿泊: 成田エクセルホテル東急
제7일(第7日)	2월22일 (월)	2月22日(月)
	<전체>	<全体>
10:00	호텔 출발 (체크아웃)	ホテル発(チェックアウト)
10:15	나리타 공항 도착, 체크인	成田空港着、チェックイン
	<부산>	<Busan>
12:45	나리타 공항 출발 (KE716)	成田発(KE716)
15:10	김해공항 도착	釜山(金海空港)着
	<서울>	<Seoul>
12:50	나리타 공항 출발 (KE702)	成田発(KE702)
15:30	인천공항 도착	ソウル(仁川空港)着
	복장 : 캐주얼	当日の服装: カジュアル

Ⅲ. 협력기관 정보

국제연합대학교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国連連合大学

5-53-70 Jingumae, Shibuya-ku, Tokyo 150-8925

〒150-8925 東京都渋谷区神宮前 5-53-70

TEL: +81-3-5467-1212

FAX: +81-3-3499-2828

URL: <http://www.unu.edu>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公益財団法人 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ACCU)

Japan Publishers Building, 6 Fukuromachi, Shinjuku-ku, Tokyo 162-8484

〒162-8484 東京都新宿区袋町 6 日本出版会館

TEL: +81-3-3269-4498

FAX: +81-3-3269-4510

Email: saito.seigo@accu.or.jp

URL: <http://www.accu.or.jp>

일본문부과학성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文部科学省 (MEXT)

3-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59

〒100-8959 東京都千代田区霞ヶ関 3 丁目 2 番 2 号

TEL: +81-3-5253-4111

FAX: +81-3-6734-3679

URL: <http://www.mext.go.jp>

주일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1-2-5 Minami-Azabu, Minato-ku, Tokyo 106-8577

〒106-8577 東京都港区南麻布 1-2-5

TEL: +81-3-3452-7611/9

FAX: +81-3-5476-3299

URL: <http://jpn-tokyo.mofat.go.kr/>

고마에시 교육위원회 Komae City Board of Education

狛江市教育委員会

1-1-5 Honcho Izumi Komae-City, Tokyo 201-8585

〒201-8585 狛江市和泉本町 1 丁目 1 番 5 号
TEL: +81-3-3430-1111
URL: <https://www.city.komae.tokyo.jp/index.cfm/48.html>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 Saitama City Board of Education

さいたま市教育委員会
6-4-4 Tokiwa Urawa-ku Saitama-City, Saitama 330-9588
〒 330-9588 さいたま市浦和区常盤 6 丁目 4 番 4 号
TEL: +81-48-829-1662
URL: <http://www.city.saitama.jp/003/002/008/index.html>

나가노현 교육위원회 Nagano Prefecture Board of Education

長野県教育委員会
692-2 Minaminagano Habashita Nagano-City, Nagano 380-8570
〒380-8570 長野県長野市大字南長野字幅下 692-2
TEL: +81-26-235-7435
URL: <http://www.pref.nagano.lg.jp/kyoiku/kyoiku/>

IV. 관련 기사

* 치바현립 나가레야마 오타카노모리고등학교

2016/02/18

韓国教職員来校

2月17日(水)に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ACCU)の主催事業「韓国教職員招へいプログラム」の学校訪問で韓国の先生方39名が本校を訪れました。本校のユネスコ活動の説明・授業見学に続き、合唱部披露では大きな拍手をいただきました。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科の2、3年生の韓国語選択者との交流では和気藹々の場面となりました。さすが、おたかの生徒です。



한국교직원 내교

2월 17일(수)에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ACCU)의 주최 사업인 “한국교직원 초빙 프로그램”의 학교 방문으로 한국의 선생님 39명이 본교를 방문했습니다. 본교의 유네스코 활동 설명, 수업 견학에 이어 합창부 공연에서는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2, 3학년 학생의 한국어 선택자와의 교류는 화기애애한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오타카의 학생입니다.

출처: 나가레야마 오타카노모리고등학교 홈페이지 2016년 2월 18일

* 쇼와여자대학교부속 쇼와중학교·고등학교

ユネスコスクール 韓国教職員の方々との交流 [2016年02月17日(水)]

本日は国際教育交流事業の一環として

韓国のユネスコスクールの先生方が本校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

韓国の先生方との意見交換を行ったり、また施設や授業を見学されたりしました。



お茶室ではお点前を見学していただき、お茶を一服差し上げることもできました。



また、休み時間には「アンニョンハセヨ！！」と元気よく韓国の先生方に声をかけ、

交流を楽しむ多くの生徒の姿も見られました。



韓国語を履修している6年生の流暢な話しぶりに驚かされました。

生徒も教員も日韓両国の相互理解を深めることができた1日となりました。

ユネスコ 학교 한국교직원 분들과의 교류 [2016년02월17일(수)]

오늘은 국제교육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유네스코 학교의 선생님 분들이 본교에 오셨습니다.

한국선생님과의 의견교환을 나누기도 하고 시설이나 수업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다도실에서는 가루차를 달여 내는 것을 견학하고 차를 한잔 시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쉬는 시간에는 “안녕하세요!!”하고 활기차게 한국 선생님들께 말을 건내고
교류를 즐기는 많은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이수하고 있는 6학년 학생의 유창한 입담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도 교직원도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하루가 되었습니다.

출처: 쇼와여자대학교부속 쇼와중학교 · 고등학교 블로그 2016년 2월 17일

* 고마에시립 고마에 제1중학교

2月19日の韓国の先生方の一中訪問の様子が報告書になりました。

(韓国教職員招へいプログラム実施報告書 国際連合大学、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http://www.accu.or.jp/jp/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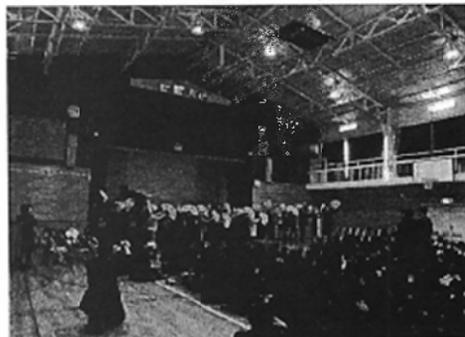
施している。3年前より人権教育の基盤である生徒の自尊感情の向上の取り組みを行っている。

同校到着後、全校歓迎集会有った。一行が会場である体育館に入場すると全校生徒から拍手で迎えられた。訪問団員による国家斉唱、同校全校生徒による校歌斉唱に続き、生徒会会長より、「韓国の中学校とは異なる部分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本校の良さを少しでも知っていただきたいです」とのあいさつがあった。続いて、訪問団を代表して木一(モギル)中学校校長の崔承愛(チェ・スンエ)氏が、「このような歓迎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地理的にも近い両国の発展を願っています」とあいさつをした。続いて、同校生徒会より同校の紹介があった。体育祭、合唱祭、そして多摩川サイクリングコースを走るというロードレースなどの学校行事が紹介された。学校紹介が終わると、最後に自国の歌を贈りあった。一行は感謝の気持ちを込めて「アリラン」を合唱し、同校生徒からはおかえしに「ふるさと」を合唱した。

歓迎集会終了後、授業参観が行われた。同校校長の樋口豊隆氏、副校長の植村多岐氏の案内のもと、2グループに分かれて、英語、地理、美術、体育、数学などの授業を参観した。また、ホームルームや清掃の様子も見学し、日本の学校生活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た。

授業参観終了後、大会議室に戻ると樋口氏より流暢な韓国語で、「皆様の訪問を心より歓迎致します」とのあいさつがあった。また、グループ長の金東湜氏が、「お招きいただいたこと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と返礼した。また、韓国語を学習している

生徒2名が韓国語でスピーチを行った。続いて、生徒会役員による発表があり、同校が推進するいじめ防止のためのホワイトリボン運動が紹介された。いじめ防止のために生徒会がつくった歌「ともに」の作成過程なども併せて紹介され、生徒会役員が実際にその歌を披露した。生徒会との質疑応答の時間には、「生徒会はどのような学年構成なのか」、「このように生徒会活動を活発に行うことは日本では一般的なのか」などの質問があがるとともに、「韓国の学校で校長をしているが、ぜひ生徒会交流を実現させたい」との提案もあがった。続いて、2015年8月に「韓国政府日本教職員招へい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樋口氏より、訪韓時の様子が伝えられるとともに、プログラム期間中に日本教職員が韓国語で合唱した「美しい世の中」を、ウクレレの弾き語りで披露した。韓国語でスピーチを行った生徒や、訪問団員も一緒に歌い、会場にいる両国の教職員および生徒が音楽を通して1つになった。最後に樋口氏、金東湜氏による記念品交換が行われ、一行は同校を後にした。会場を出る際に多くの訪問団員がホワイトリボン運動への共感を示し、署名を行った。



韓国教職員による「アリラン」合唱
(柏江市立釜江第一中学校)

제 1중학교 도착 후, 전교 환영집회가 있었다. 일행이 회장인 교육관에 입장하자 전교생이 박수로 맞이했다. 방문단원에 의한 국가제창, 제1중학교 전교생에 의한 교가제창에 이어 학생회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중학교와는 다른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교의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방문단을 대표하여 목일중학교 교장인 최승애씨가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마음으로부터 감사 드립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양국의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이어서 제1중학교 학생회로부터 본교 소개가 있었다. 체육제, 합창제, 그리고 다마가와 사이클링 코스를 달리는 로드레이스 등의 학교 행사가 소개되었다. 학교소개가 끝나자 마지막으로 자국의 노래를 주고받았다. 일행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리랑"을 합창하고 본교 학생들은 답례로 "고향(후루사토)"을 합창했다.

환영집회 종료 후, 수업 참관이 이루어졌다. 본교 교장인 히구치 토요타카씨, 부교장인 우에무라 타키씨의 안내 하에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영어, 지리, 미술, 체육, 수학 등의 수업을 참관했다. 또한 홈룸(Homeroom)이나 청소 시간 모습도 견학하고 일본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높였다.

수업 참관 종료 후, 대회의실에 돌아오자 히구치씨로부터 유창한 한국어로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인사가 있었다. 또한 그룹장인 김동식씨가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라고 답례했다. 그리고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생 2명이 한국어로 스피치를 했다. 이어서 학생회 임원에 의한 발표가 있고 본교가 추진하는 이지메 방지를 위한 화이트 리본운동이 소개되었다. 이지메 방지를 위해 학생회가 만든 노래 "함께"의 작성 과정 등도 추가해서 소개하고 학생회 임원이 실제로 그 노래를 피로했다. 학생회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회는 어떤 학년으로 구성된 것인가",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일본에서 일반적인 것인가" 등의 질문이 있었고 동시에 "한국의 학교에서 교장을 하고 있는데, 부디 학생회 교류를 실현시키고 싶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어서 2015년 8월에 "한국정부 일본교직원 초빙 프로그램"에 참가한 히구치씨가 방한시의 모습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 기간 중에 일본교직원이 한국어로 합창한 "아름다운 세상"을 우쿨렐레를 치면서 노래했다. 한국어로 스피치를 한 학생과 방문단원도 함께 노래하여 회장에 있던 양국의 교직원 및 학생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히구치씨, 김동식씨에 의한 기념품 교환이 있었고 일행은 본교를 뒤로했다. 회장을 나갈 때에 많은 방문단원이 화이트 리본운동에 공감을 표하고 서명을 했다.

출처: 고마에 제1중학교 2016년 3월 24일 NO.129

<http://www.komae.ed.jp/jh/01/index.cfm/14,1057,c.html/1057/20160325-082216.pdf>

韓国教職員招へいプログラム受け入れ：2月19日（金）



韓国教職員代表者の
あいさつ
日韓の教職員親善
の一環として、ご挨拶
をいただきました。



記念品の授受
韓国の国宝級文化
財のお面の模型が入
った額を記念品とし
ていただきました。校
内に掲示いたします。



2月19日（金）には、大韓民国から教職員35名が本校を視察に来ました。文部科学省、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の委託を受けたさいたま市教育委員会からの依頼により実現しました。当日は、本校の学校概要説明、施設見学、授業参観を行いました。韓国の教職員からは、本校の充実した施設設備、一人ひとりに対応した指導体制、最先端の教育技術を活用した教職員の研修体制等に驚きの声が多数ありました。会場では、特別支援教育発展のための協議が熱心に行われました。

한국교직원 초빙 프로그램 수용: 2월 19일(금)

한국교직원 대표자의 인사

한일 교직원 친선의 일환으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기념품의 수령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인 얼굴 탈이 들어있는 액자를 기념품으로 받았습니다. 교내에 게시했습니다.

2월 19일(금)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직원 35명이 본교를 시찰하러 왔습니다. 문부과학성,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 센터의 위탁을 받은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로부터의 의뢰로 인해 실현되었습니다. 당일은 본교의 학교 개요 설명, 시설 견학, 수업 참관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직원으로부터는 본교의 충실한 시설 설비, 한명 한명 대응하는 지도 체제, 최첨단의 교육기술을 활용한 교직원의 연수 체제 등에 놀라움의 목소리가 다수 있었습니다. 회장에서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이 열심히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사쿠라소특수학교 2016년 3월 1일 <http://sakurasou.saitama-city.ed.jp/3tayori/H27/tayori2803.pdf>

2월 19일(금)에는 대한민국에서부터 교직원 35명이 본교를 시찰하러 왔습니다. 문부과학성,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 센터의 위탁을 받은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당일은 본교의 학교 개요 설명, 시설 견학, 수업 참관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직원으로부터는 본교의 충실한 시설 설비, 한명 한명 대응하는 지도 체제, 최첨단의 교육 기술을 활용한 교직원의 연수 체제등에 놀라움의 목소리가 다수 있었습니다. 회장에서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이 열심히 이루어졌습니다.

韓国教職員に善光寺ガイド実施(2/19)

韓国より37名の高等学校の教職員の方々が来日し、国際教養科1年が善光寺をガイドしました。12月に英語での善光寺ガイド研修を実施し、外国の観光客が興味を持ちそうな点や案内するときの視線や表情の大切さなどを学びました。今回初めて海外のお客様対象にガイドに挑戦しました。



一番に感じたことは、「伝え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ことでした。とくに、お寺の紹介では難しい日本語や物の名前をどうやって英語にするか、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このガイドを通して、また交流することの楽しさ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

善光寺のことだけでなく、将来のことなど様々なこととお話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とても興味深かったです。先生方にも楽しんでいただけたようなので良かったと思います。

ガイドはしっかり出来たとは言い難いけれど会話は結構できたし、私達自身も色々な事を教えていただけて新しく学んだ事もあったので良かったと思う。

自分も知らないことも、外国の方にガイドをしたおかげで知ることでもできた。熱意があれば何でも伝わりと実感した。

ガイドを通して外国の方と関わるのがこんなにも充実したことなのだなと思いました。ガイドをきっかけに私自身本を読んだりホームページを見たりなど善光寺について前よりも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からもっと経験・練習をつんで良いガイドになりたいです。

はじめての善光寺ガイドで、案内をする私たちが善光寺をよく知らなかったことに気づかされました。いつも通学で通っているのに、分かっているような気持ちになっていたけど、全然分からなくて、質問されてもとまどってしまい、うまく答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英単語も知らないのが多くて、先生方がおっしゃっていた英語もあまり理解できず、何度もききかえしてしまいました。そのため、英単語の知識を増やし、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るようにしたいです。

한국교직원에게 선광사 가이드 실시(2/19)

한국으로부터 37명의 고등학교 교직원 분들이 방일하여 국제교양과 1학년이 선광사를 가이드 했습니다. 12월에 영어로 선광사 가이드 연수를 실시하여 외국의 관광객이 흥미를 가질 만한 점이나 안내할 때의 시선이나 표정의 중요성 등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해외 손님 대상으로 가이드에 도전했습니다.

가장 우선 느낀 것은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절의 소개에서는 어려운 일본어나 물건의 이름을 어떻게 영어로 할까,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통해 또 한번 교류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광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일 등 다양한 것을 말할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이드는 확실히 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회화는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우리 자신도 여러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배운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도 외국 분들에게 가이드를 한 덕분에 알 수 있었다. 열의가 있다면 무엇이든 전달할 수 있다고 실감했다.

가이드를 통해 외국 분들과 관련되는 것이 이렇게도 충실한 것이구나 등을 생각했습니다. 가이드를 계기로 하여 제 자신이 책을 읽거나 홈페이지를 보는 등 선광사에 대해서 전보다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경험, 연습을 쌓아서 좋은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 한 선광사 가이드에서 안내를 하는 우리가 선광사를 잘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통학하며 다니고 있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전혀 몰라서 질문을 받아도 망설이고 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단어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말하시는 영어도 그다지 이해할 수 없어 몇 번이고 되물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단어의 지식을 늘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출처: 나가노니시고등학교 2016년 2월 [2015 국제교양과 NEWS 2월호]



■韓国文化を授業で体験
 狛江市立第六小学校で18日、韓国の小学校教諭ら39人が韓国の文化を教える授業を行った。国連大学(渋谷区)の国際教育交流事業で、同市では初めて。教諭らは普段の授業を見学後、各教室に分かれて教壇に立った。6年生の教室では、パク・ソヨンさん(36)が韓国の正月遊び「ユンノリ」を英語で教えた。4本の棒を投げ、表裏によって駒を進めるすごろくで、児童たちも実際に棒を投げて楽しんだ。

パクさんは「言葉が通じず戸惑いましたが、動作でルールを分かってもらえた」。授業を受けた大野想二郎君(12)は「韓国料理はおいしくて好き。いつか韓国に行って食べたい」と話した。

©朝日新聞社 無断複製転載を禁じます。すべての内容は日本の著作権法並びに国際条約により保護されています。

아사히신문 2016년 2월 19일 조간 29페이지
 한국문화를 수업으로 체험

고마에시립 제6초등학교에서 18일,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들 39명이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수업을 했다. 국제연합대학(시부야구)의 국제교육교류사업으로 고마에시에서는 처음. 교사들은 평소의 수업을 견학한 뒤, 각 교실로 나뉘어져 교단에 섰다. 6학년의 교실에서는 박소연씨(36)가 한국의 정월놀이 “윷놀이”를 영어로 가르쳤다. 4개의 막대기를 던져 안팎에 따라 말을 진행시키는 주사위 놀이로 아동들도 실제로 막대기를 던지며 즐거워했다.

박씨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망설였습니다만, 동작으로 룰을 알도록 했습니다”. 수업을 받은 오노 쇼지로군(12)은 “한국요리는 맛있고 좋아한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먹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출처: 아사히신문 2016년 2월 19일

韓国から40人の視察団

ユネスコスクール交流

中野西高



再生方法は8面参照 初めて韓国語による授業を体験し、真剣に耳を傾ける生徒

中野西高校に18日、韓国ユネスコスクールに認定されたユネスコスクールに認定されている高校の教員と関係者約40人の教育視察団が

来校し、韓国語や英語で講義するなどして交流を図った。

この事業は、国連大学本部・東京都の委託を受けた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が主催する国際交流プログラムの一環、韓国のユネスコスクール関係者が県の教育事情を視察するとともに、県内の高校で唯一、ユネスコスクールに認

記念品を交換し合う宮崎校長ら



定されている中野西高校の生徒とふれあい、互いの文化を紹介し合うことで親睦を深めるために行われた。1年2組では、チャン・オクジン教諭(社会科)が、韓国の高校生がどのように生活しているかについて紹介。中野西高の金嘉賢さん(1年・須坂市)が通訳し、分かりやすく伝えた。



視察団員と記念撮影

チャンさんは「ハイスクールものがたり」と題する高校生の日常を記録したスライドを用いて説明。韓国の高校生は、午前9時頃から昼食をはさんで午後5時頃まで授業を受け、7時までの間に補習と夕食を済ませた後、10時頃まで夜間自学習を行うと紹介。「以前は、強制的に自学習を



「素晴らしい」と記念品に喜ぶ視察団の代表

行っていたが、風潮的に難しくなった」としてあくまで自主的にする学習だと説明。また、給食が昼夜2回提供され、生徒たちは昼食後、机にもたれるようにして昼寝をする習慣があると紹介。「西高はそんなことしない?」と質問し、西高生の笑いを誘っていた。また、今回の来日に向け、チャンさんが担任する生徒らが英語、韓国語、日本語で西高生らに付箋でメッセージを寄せ「100万円あったらどうしますか」「日本のおいしい食べ物をすすめてください」などの質問に西高生が返答を書くなどした。

歓迎セレモニーであいさつした生徒会の宮本莉乃さん(2年・須坂市)は「初めて韓国の人にあいさつ。アクションが大きくて楽しい」として、視察団の教員らと記念撮影を楽しんだらと韓国製のUSBメモリをプレゼントされるなどして喜んだ。宮崎清孝校長は「ユネスコスクールに昨年6月に認定され、活動の幅が広がる年度末を迎えることができ、良いスタートが切れた。このような取り組みが続き、さらにその先の可能性を探っていきたい」と話していた。

한국으로부터 40명의 시찰단
유네스코학교 교류
나카노니시교

나카노니시교교에 18일 한국에서 유네스코 학교에 확정되어있는 고등학교의 교원과 관계자 약 40명의 교육 시찰단이 방문하여 한국어나 영어로 강의하는 등 교류를 도모했다.

이 사업은 국제연합대학(본부, 동경부)의 위탁을 받은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가 주최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 한국의 유네스코학교 관계자가 현의 교육 사정을 시찰하는 것과 동시에 현내의 고교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학교로 인정받고 있는 나카노니시교교의 학생과 만나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받는 것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졌다.

1학년 2반에서는 장옥진 교사(사회과)가 한국의 고교생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 나카노니시교교의 김가람씨(1학년, 스자카시)가 통역하고 알기 쉽게 전달했다.

장씨는 "하이스쿨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고교생의 일상을 기록한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설명.

한국의 고교생은 오전 9시경부터 점심을 사이에 두고 오후 5시경까지 수업을 받고 7시까지의 사이에 보충수업과 저녁을 끝낸 뒤, 10시경까지 야간 자립학습을 한다고 소개.

"이전에는 강제적으로 자립학습을 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렵게 되었다"라며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하는 학습이라고 설명. 또한 급식이 주야 2회 제공되어 학생들은 점심을 먹은 뒤, 책상에 기대듯이 하여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고 소개. "니시교는 그런 것 하지 않니?"라고 질문하여 니시교 학생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이번 방일을 위해 장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니시교 학생들에게 포스트의 메세지를 보내 "100만엔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의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등의 질문에 니시교 학생이 답변을 쓰는 등 했다.

환영 세례모니로 인사한 학생회의 미야모토 리노씨(2학년, 스자카시)는 "처음으로 한국사람과 만났다. 리액션이 커서 즐겁다"라고 하여 시찰단의 교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즐기거나 한국제 USB메모리를 선물 받는 등 기뻐했다. 미야자키 키요타카 교장은 "유네스코학교에 작년 6월 인정되어 활동의 폭을 넓혀 년도 말을 맞이할 수 있어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 좀 더 앞의 가능성을 살피고 싶다" 고 말했다.

출처: 호쿠신 로컬 2016년 2월 26일

韓国教職員が来日しました

人物交流事業 ESD

2016年2月23日



日韓教育交流会（狛江市立緑野小学校）

2016年2月16日（火）から22（月）まで、「2015-2016年 国際教育交流事業 韓国教職員招へいプログラム」が開催されました。

来日した111名の韓国教職員は、日本における初等中等教育について、文部科学省による講義を受けた後、3つのグループに分かれ、東京近郊のユネスコスクールを訪問しました。その後、各グループはそれぞれ東京都狛江市、埼玉県さいたま市、長野県を訪問しました。

各自治体の特色のある取組みについて説明を受け、実際に学校を訪問することで日本の教育への理解を深めました。また、日本の児童・生徒や教職員との交流の機会も多く設けられました。

22日（日）には、ACCUシニアアドバイザーの柴尾智子がファシリテーターを務め、ワークショップ形式で報告会が行われました。各グループが期間中に学んだこと、得たものを発表すると共に、国連ESDの10年における日本の学校の成果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ました。

参加者には、日本で経験したことを韓国に持ち帰り、ご自身の教育活動に活かしていただくとともに、日韓両国のさらなる友好・相互理解の促進に貢献していただきます。

お忙しい中、訪問を快くお引き受けくださった訪問校の皆様、狛江市、さいたま市、長野県の各教育委員会の皆様には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

本プログラムで訪問した学校は以下のとおりです。

<Aグループ>

千葉県立深山おおたかの森高等学校、狛江市立狛江第六小学校、狛江市立和泉小学校、狛江市立狛江第一中学校、狛江市立緑野小学校

<Bグループ>

トキワ松学園中学校高等学校、さいたま市新開小学校、さいたま市立さくら草特別支援学校、さいたま市立木崎中学校

<Cグループ>

昭和女子大学付属昭和中学校・高等学校、長野県中野西高等学校、長野県長野養護学校、長野県長野西高等学校

本プログラムにつきましては、後日報告書を作成し、ホームページにも掲載します。昨年度までの報告書は以下からご覧いただけます。

<http://www.accu.or.jp/activity/person/03-02b-03.html>

한국교직원이 방일했습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년 2월 16일(화)부터 22(월)까지 "2015-2016년 국제교육교류사업 한국교직원 초빙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습니다.

방일한 111명의 한국교직원은 일본의 초등·중등교육에 대해 문부과학성에 의한 강의를 받은 뒤,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동경 근교의 유네스코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후, 각 그룹은 각자 동경부 고마에시,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나가노현을 방문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특색 있는 대처에 대해 설명을 받아 실제로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본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아동, 학생이나 교직원과의 교류 기회도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22일(일)에는 ACCU 시니어 어드바이저인 시바오 토모코씨가 촉진자 역할을 맡아 워크숍 형식으로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그룹이 기간 중에 배운 것, 얻은 것을 발표함과 동시에 국제연합 ESD의 10년에 있어서 일본의 교육 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일본에서 경험한 것을 한국에 가지고 돌아가, 자신의 교육 활동에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한일 양국의 한층 더 깊은 우호, 상호 이해의 촉진에 공헌해주었으면 합니다.

바쁜 와중에 방문을 흔쾌히 받아 들여주신 방문교의 여러분, 고마에시, 사이타마시, 나가노현의 각 교육위원회의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방문한 학교는 이하와 같습니다.

<A그룹>

치바현립 나가레야마 오오타카노모리 고등학교, 고마에시립 고마에 제6초등학교, 고마에시립 이즈미 초등학교, 고마에시립 고마에 제1중학교, 고마에시립 미도리노 초등학교

<B그룹>

도키와마츠학원 중학교·고등학교, 사이타마시립 시비라키초등학교, 사이타마시립 사쿠라소특수학교, 사이타마시립 기자키중학교

<C그룹>

쇼와여자대학부속 쇼와중학교·고등학교, 나가노현 나카노니시고등학교, 나가노현 나가노양호학교, 나가노현 나가노니시고등학교

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후일 보고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작년까지의 보고서는 이하 링크에서 봐주십시오.

<http://www.accu.or.jp/jp/activity/person/03-02b-03.html>

2016년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 참가 후기

한·일 교사들, 교육 속에서 미래로 가는 길을 찾다

지난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6박7일간 '2016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이 일본 도쿄, 나라타시, 코마에서, 사이타마시, 나가노현 등지에서 진행됐다. 일본방문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일 양

국의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교류협력,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과연 양국의 교육자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을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일 교사들과 일본 학생이 보내는 '참가 후기'를 간추려 실는다.

일본 방문 프로그램 참가 한국 교직원 후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토대 이룰 소중한 경험

지난 2월 한국 교사 및 교육계 인사 110여 명과 함께 참여한 7박 8일간의 일본방문 프로그램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방문여행이었다. 일본 문부과학성과 한국 교육부의 공동후원과 협력에 의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해온 한일교사 상호방문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16년간 약 1500명의 한국교사들이 참여한 바 있다.

이번 방문 프로그램은 초·중등 교육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문화수업 체험, 생활 체험, 문화·역사 탐방, 비교교육 연수, 교육기관 및 교육자 간 소통, 민간 친선교류, 그리고 공공외교의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부 일정별로 빈틈없이 짜인 스케줄에 따라 다양한 일정이 착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상호교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겨진다.

간단히 진부적인 내용과 소감을 정리해보면, 우선 첫째, 일본 초·중등 교육정책의 현황과 당면 과제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이 지향하는 학교교육 및 국가교육의 방향과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전반적으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입시 경쟁이나 압박이 덜하고, 탄탄한 인성 및 시민교육, 다양한 취미, 특기 학습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최근에는 국제화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도 새로운 추세였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의 역할 강화나 교육개혁의 현실과 당면 과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교과과정, 학교행정, 학생지도 등 주요한 주제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기법, 상당한 학교 행정업무의 부담,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이나 때로는 과도한 학부모의 자녀 보

호 등 우리 교육과 비슷한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지역의 개별 학교 방문과 참관, 그리고 여러 개의 한국문화 소개 시범 수업, 그리고 학생, 교사와의 직접 대면 기회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한·일 교육 교류의 유용성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교사들이 준비한 역사, 문화 수업을 받은 일본 학생들이나, 여러 수업 소품을 준비해가고 일본어 혹은 영어로 열심히 수업을 실시한 우리 교사들 모두에게 좋은 소통과 국제교육의 현장 경험이 되었다.

넷째, 교육청에서의 정책 소개와 질의응답, 합창공연 등 문화 교류, 개별 가정방문 교류 등은 한국과 일본 양측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호 이해와 개인적인 친분을 도모하는 기회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맞이한 일본인들의 친절함과 성의를 다하는 태도에 새삼 감명을 받았다.

이번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한일 양국이 미래세대의 교육과 교육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 간 갈등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사 교류는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과 세계시민교육의 상호 학습 차원에서 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그동안 교사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일 양측 교사 간에 꾸준한 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한 교육팀 등 한국위원회 관계자 및 일본 측 기관 관계자 여러분, 무엇보다 함께 참가하여 성과를 거둔 방문단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

박종순 선문대 대학원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 인문사회자연분과 부위원장)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문계 선생님

"철저한 안전교육에 깊은 인상 받아"

한일교사대화 연수 둘째 날부터 시작된 교육기관 방문 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한 학교는 도키와마츠 여자 중고등학교이다. 도쿄 소재 도키와마츠 학교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명문 사립학교이다. 이 학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계 20개국과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원어민을 초청하여, 중1부터 고1까지 무학년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원어민이 진행하는 영어수업과 체육관을 활용한 PA(Project Adventure) 수업을 참관했다. 체육관에는 수업장과 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 일본은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하니 부러울 따름이었다. 도키와마츠 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학생 안전사고를 대비해 방범훈련을 한다는 것이었다. 방범훈련은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을 위협할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다. 방범을 통해 신원이 불명확한 외부인이 교내에 들어왔다는 상황이 전달되면, 학생들은 즉시 교실 전등을 끄고, 문을 잠금 상태로 교사와 함께 교실에서 대기한다. 이때 교무실에서는 인근 경찰서에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학생 보호조, 교내 탐색조를 운영한다. 외부인에 의한 사건 사고가 간혹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안전훈련이 필요함을 느꼈다.

셋째 날에는 도쿄 북쪽의 사이타마시로 이동하여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시 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교육지원청 같은 성격이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집합연수, 교원 면허 갱신시험(10년 주기), 수업명인제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이타마시에서는

시립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였는데, 이 중 특수학교가 가장 인상 깊었다.

우리가 방문한 사쿠라소 특수학교는 2012년 개교한 시립 학교로, 특수교육 대상자 중 중복장애를 가진 최중증 학생만이 입학할 수 있는 특성화 특수학교였다. 이 학교의 1년 예산이 총 34억 엔이라고 하는데, 재학생이 34명인 것을 감안하면 학생 1명당 약 1억 엔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예산이 많은 만큼 시설과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수준이 매우 높았다. 학생의 통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4대의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었고, 온수 수영장, 사우나, 생활 훈련실, 도예실 등 현대화된 교육시설이 있었다. 급식은 소화력이 부족한 학생,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생을 배려하여 보충식사, 부드러운 식사, 짙게 자른 식사, 갈아 만든 식사 4가지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학생들에게 1:1로 특수교육실무원이 배치되었고, 응급의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파견된 3명의 간호사가 학교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일본은 교육제정이 엄격하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사쿠라소 특수학교를 보니, 불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연수가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박박한 일정의 연수였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서 일본의 문화, 교육, 생활 등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한국 유네스코위원회 관계자분들과 출장을 허락해준 아산성심학교 교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

인문계 이선성선학교 교사

일본 참가 교사 및 학생 후기

“양국이 서로 해법 다른 왕따 문제에 대한 논의 기억 남아”

2016년 2월 20일 오전 고마에 시립 미도리노 초등학교에서 고마에시 교육 위원회가 주최한 ‘한일교육교류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2016 한국교육원 일본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교원 중 그룹 A의 선생님들(39명)과 고마에시 공립 초, 중학교 교사들(31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류회의 목적은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의제는 「왕따·등교 거부」, 「외국어 활동·영어 교육」, 「교과 횡단형 수업」, 「건강 교육」, 「특별 지원 교육」의 다섯 가지였다.

내가 속한 그룹의 주제는 ‘왕따·등교 거부’로, 한국 측은 고등학교 교장, 지도교사,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4명, 일본 측은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사 2명 등 3명, 총 7명으로 주로 왕따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 약 1시간 반에 걸친 논의 결과, 공통점으로는 왕따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교육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왕따의 상황과 대응 방법에는 두 나라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왕따는 약한 자에 대한 괴롭힘을 뜻하는데 일본에서는 또래 집단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약한 학생에 대한 왕따뿐만 아니라, 우수한 아이가 왕따를 당해 대학까지 이어지는 예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결 방법으

로는 일본 측은 기본적으로는 우선 학교 내부에서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한국 측은 왕따 대책위원회에 처음부터 경찰이나 변호사가 개입하여 해결에 관여하거나, 상황에 따라 왕따를 주도한 측에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왕따시키는 아이뿐만 아니라 왕따를 당하는 측도 함께 교육하기 위한 왕따 대책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국민성의 차이 때문인지, 교육 시스템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혹은 문제의 근원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나의 좁은 안목에서 판단할 수 없지만, 한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왕따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 선생님들의 발언에서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교류회를 통해 더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 ■

기와사키 다카시
(도쿄도 고마에시 시립 고마에 제6초등학교 교장)



한일교육교류회를 갖고 있는 양국 교사들과 기와사키 교장(왼쪽에서 두 번째)



허희탈과 함께 포즈를 취한 다케노 하나코 양

한국 유학의 꿈 격려해주는 한국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2016 한국교육원 일본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나

가노현을 방문한 한국의 선생님들을 맞이하는 귀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의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고 우리에게 한국의 문화와 학교에 대해 정중하게 가르쳐 주셔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환영 행사에서 학생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선생님들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의 서투른 한국어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큰 박수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교내 안내를 할 때에도 제가 말하는 것을 열심히 이해하려고 해주시는 등 한국어 회화를 적

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기뻐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였습니다. 독학이기도 하고, 아직 공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자신 있게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할 정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꿈을 향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과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한국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

다케노 하나코
(나가노현 나가노시니시고등학교 1학년)

유네스코학생협회 (KUSA)

KUSA 상반기 정기총회 숙명여대서 열려

부회장 선출, 3개 신규 지회 등록 등 안건 다뤄



쿠사 상반기 정기총회

지난 3월 12일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 316호에서 2016년도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이하 KUSA) 상반기 정기총회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천대지회, 강릉대지회, 건국대지회 등 총 17개의 지회에서 20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부의장 및 서기 선출, 2016 KUSA 신입생현명회 행사 관련 의견 수렴, 상반기 사업 세부 사항 및 예산 심의, 그리고 지회 등록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지구 사업, KUSA PATH 2기, ‘돌이던 대화’ 등의 상반기 기획 사업의 세부 사항과 예산안을 설명하

고 참석 지회에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회 등록 안건은 2016년도 협회 정기회 등록을 신청한 강릉대지회, 순천향대지회, 한양대 서울캠퍼스지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3개 지회의 등록에 대한 찬반투표(거수)를 진행한 결과 세 지회 모두 만장일치로 가입이 결정됐다. 이로써 협회연맹은 총 31개 지회를 회원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올해 10월에 예정된 정선아리랑제 스태프 모집에 대한 홍보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16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프로그램

2016 Invitation Programme for Korean Teachers

퍼 낸 날 | 2016년 6월 20일

퍼 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퍼 낸 이 | 민동석

엮 은 이 | 서현숙, 이지은, 구슬초롱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 www.unesco.or.kr

문 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전 화 | 02-6958-4282

팩 스 | 02-6958-4252

전자우편 | unescoteacher@unesco.or.kr

한위간행물등록번호 ED/2016/RP/2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